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2006학년도

사주와 *MBTI* 성격이론과의
상관관계 연구

지도교수 김 기 승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철학(명리학)교육전공

김 석 란

사주와 *MBTI* 성격이론과의
상관관계 연구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7월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철학(명리학)교육전공

김 석 란

김석란의 학위논문을 인준함

주심위원 _____인

부심위원 _____인

부심위원 _____인

2007年 7月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감사의 글

무릇 돌이켜 보건데 초록이 산천을 물들이던 길을 따라 안동에서 청양까지 네 시간을 달려가던 긴 시간동안 새로운 학문을 연구한다는 설레임과 학우들과의 우정이 쌓여가는 기쁨으로 마냥 기뻐하던 나의 모습을 회상하며 졸업이라는 문 앞에 이르니 감격스럽고 아쉬움의 잔영이 가슴을 적십니다.

먼저 저에게 학문에 대한 폭넓은 시야와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시고 본 논문을 완성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기승 지도교수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논문 심사를 맡아 가르침을 주신 정찬남 교수님, 오기선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언제나 학문적 지식은 물론 밝은 웃음으로 인간애를 보여주신 최영선 교수님께도 감사드리며, 희로애락을 함께해 온 사랑하는 학우들과 본 논문연구를 위해 성심껏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끝으로 저를 위해 늘 격려와 용기를 주신 박기영 신도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저를 위해 아침저녁으로 기도하고 계신 부모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2007년 7월

김 석 란

사랑하는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목 차

표 차례	i
그림 차례	ii
국문초록	iii

I. 서 론 1

A. 문제의 제기	1
B.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C. 연구의 제한점	4

II. 이론적 배경 5

A. 사주명리학 이론	5
1. 개념과 학사의 고찰	5
2. 이론의 형성배경	9
3. 오행과 십성의 원리	11
4. 격국과 용신과 성격심리	14
B. 성격이론	17
1. 성격의 개념	17
2. 성격에 대한 연구	22
3. 사주명리학의 성격이론	25
4. MBTI 성격유형검사	36

C. 사주명리학과 MBTI 성격이론과의 관계	42
1. 오행과 MBTI 4가지 지표와의 관계	42
2. 십성과 MBTI 4가지 지표와의 관계	46
III. 연구의 방법 및 절차	50
A. 연구의 대상	50
B. 측정방법 및 도구	50
IV. 연구결과의 분석 및 해석	53
A. 표본인구의 통계적 특성	53
1. 응답자 사주에 관한 일반적 통계	53
2. 응답자 설문에 관한 통계	56
B. 연구의 결과	61
C. 결과의 해석	69
V. 결 론	70
A. 요약	70
B. 제언	72
*참 고 문 헌	73
* <i>ABSTRACT</i>	75

*부록	78
<부록1>설문지	78
<부록2>설문내용 분석통계자료	80

표 차 례

<표 II-1> 천간 십성 표출 도표	14
<표 II-2> 지지 십성 표출 도표	14
<표 II-3> 성격 연구의 역사	21
<표 II-4> 음양의 심리적인 특징	26
<표 II-5> 외향성/내향성	39
<표 II-6> 감각성/직관성	39
<표 II-7> 사고성/감정성	40
<표 II-8> 판단성/인식성	40
<표 II-9> MBTI 16가지 성격유형	41
<표 III-1> 설문지 유효자료 현황	50
<표 IV-1> 응답자 사주의 일간 분석	53
<표 IV-2> 일간오행의 빈도분석	54
<표 IV-3> 격국의 빈도분석	54
<표 IV-4> 태어난 계절의 빈도분석	55
<표 IV-5> 4가지 선호도에 관한 빈도분석-외향/내향	56
<표 IV-6> 4가지 선호도에 관한 빈도분석-감각/직관	56
<표 IV-7> 4가지 선호도에 관한 빈도분석-사고/감정	56
<표 IV-8> 4가지 선호도에 관한 빈도분석-판단/인식	57
<표 IV-9> 시간관리에 관한 빈도분석	57
<표 IV-10> 타이밍에 관한 빈도분석	57
<표 IV-11> 오행성향에 관한 빈도분석	58
<표 IV-12> 월지별 빈도분석	58

<표 IV-13> 학과 계열에 관한 빈도분석	59
<표 IV-14> 음양에 관한 빈도분석	59
<표 IV-15> 한난조습에 관한 빈도분석	60
<표 IV-16> 일간오행과 4가지 선호경향과의 관계	61
<표 IV-17> 일간오행별 성향 분석	62
<표 IV-18> 격국과 4가지 선호경향과의 관계	63
<표 IV-19> 격국별 성향 분석	64
<표 IV-20> 태어난 계절과 4가지 선호경향과의 관계	65
<표 IV-21> 태어난 계절별 성향 분석	66
<표 IV-22> 월지의 오행과 4가지 선호경향과의 관계	67
<표 IV-23> 월지의 오행의 성향 분석	68

그 립 차 례

<그림 II-1> MBTI 4가지 선호경향	38
-------------------------------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사주명식의 특성과 MBTI 성격 이론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이다. 한 사람의 생년월일시로 구성되는 사주명식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여기서 한 사람의 성격적인 면은 음양오행의 성정에 바탕을 둔 일간의 성정, 태어난 계절과 관련되어진 월지 그리고 격국과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사주명식의 특성을 MBTI의 성격이론 중에서 4가지 선호경향과 관련지어 연구해 보았다. 설문에 답변이 가능한 성인 연령층을 대상으로 250명에 대한 설문지를 분석하고 통계 내었다.

그 결과 목일간은 성격특성상 예견한 바와 같이 24명 9.60%로 외향형이 많았으며 인묘진 봄생들도 22명 8.80%로 외향형이 많았다. 목의 기질과 관련된 이러한 분석결과가 나왔다. 화일간관 금일간은 각기 29명 11.60%, 33명 13.25%로 감각형인 성격이 많았는데 이와 관련지어 사오미 여름생과 신유술 가을생도 각각 32명 12.8%, 35명 14.00%로 감각형이 많았다. 또한 이와 관련지어서 태어난 계절의 오행이 화, 금, 토인 경우 또한 각각 21명 8.40%, 20명 8.10%, 40명 16.00%로 감각형이 많은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결과도 오행 중에서 화와 금의 기질과 연관되어 이러한 분석결과가 나왔다.

목화토금수의 오행 중에서 가장 자신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은 목화 기질이다. 그런데 MBTI 4가지 선호경향과 관련지어 통계 분석한 결과도 목일간과 인묘진 봄생들이 가장 외향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었다. 목의 솟구쳐 오르고 성장하려 하며 진보적인 기질은 MBTI의 선호경향 중에서 외향적이라는 면으로 잘 드러나고 있다.

다음으로 성급하고 자신을 감추지 못하지만 명분과 체면을 중시하는 화의 성정과 금의 결단성과 실리적, 이기적인 성정은 MBTI의 4가지 선호경향 중에서 감각적인 성향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각적

이라는 것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법적인 면에 대한 인식인데 실용적이고 단순명료하면서 성취 가능하고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 이러한 감각적인 인식은 화와 금의 실제적이고 드러나는 기질과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사오미 여름생과 신유술 가을 생들은 감각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응답한 사람들이 많았으며 태어난 계절의 오행을 분리하여 월지가 화, 금, 토인 사람들도 감각적 인식을 가진 응답자들이 많았다. 또한 일간이 화와 금인 경우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 외에도 토일간과 수일간 그리고 월지가 화인 경우에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는 면에 있어서 감정적인 면이 많다고 응답하였으며 월지가 수인 경우는 삶을 살아가는 생활양식이 목적과 방향은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가지면서 변화할 수 있다는 인식형이 많았다.

명리학에서 설명하는 성격적인 기질과 MBTI에서의 성격이론은 이러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나의 분야가 되든 학문적인 이질성을 떠는 것이든 주체성을 떠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류는 서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 한 사람의 성격은 출생 연월일시의 정보만으로 다양한 각도에서의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I. 서론

A. 문제의 제기

출생과 더불어 한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부모의 도움을 받던, 성장 후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선택을 하던 인생의 준비를 보다 이른 시기에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적성만이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격도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결정적 요인이 되는 것이다.

한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심리적인 요인인 성격은 그 사람의 행동양식을 결정하며 살아가면서 많은 적응의 문제와도 결부되게 된다. 성격은 한 사람의 고유한 기질을 한 사람의 일생을 통하여 보여주는 중요한 요인이다. 일생을 통하여 종사하면서 경제적인 도움과 함께 자아실현의 장인 직업 선택에 있어서 적성 이외에도 성격적인 면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성격심리학자 Allport는 ‘성격은 개인의 특유한 행동과 사고를 결정하는 심리, 신체적 체계인 개인 내의 역동적 조직이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현재 사주명리학을 통한 성격검사도 많은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성격유형검사인 MBTI 성격유형검사에서 말하는 내용들과의 상관관계를 밝혀 생년월일시라는 정보만으로 출생과 더불어 한 사람의 성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여기서 얻는 개인적 사회적인 이득은 막대할 것이라고 보아진다.

사주명리학의 유용성은 현재 여러 논문에서도 밝혔듯이 인간의 지능에서부터 한 사람의 직업과 적성과 또한 학과 선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성격이나 적성과 관련된 내용들은 현재 다양

한 검사지들의 결과와 비교해서도 뒤쳐지지 않는 분석결과가 나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주명리학과 MBTI 이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성격적인 연관성을 연구하여 성격을 논하는 데 있어서 타 학문과의 교류를 시도하며 성격에 대하여 다양한 각도에서의 설명과 시야를 갖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출생과 더불어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주명리학의 유용성을 밝히고자 한다.

한 사람의 성격은 다양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한 사람의 고유한 성격을 이루고 있지만 그런 요소들을 분석하여 사주명리학에서의 오행과 십성으로 강하게 발현되는 성격이 MBTI에서 말하는 4가지 지표들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면서 성격을 구성하는지를 살펴 성격에 대한 새로운 설명과 학문의 접목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가 가지는 문제 제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MBTI 이론의 4가지 선호지표들은 명리학 이론에서 나타난 성격적인 특성들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가?

이러한 사주명리학과 MBTI라는 두 가지 이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성격적인 연관성은 사주구조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를 실시하여 성격과 관련된 한 사람의 기질은 과연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 MBTI 이론과 명리학 이론을 접목하여 알아봄으로서 이론적인 발전을 더욱 이루고 다양한 각도에서 성격을 조명해 보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B.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는 C.G.Jung의 심리유형론을 근거로 하여 Katharine Cook Briggs와 Isabel Briggs Myers가 보다 쉽고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한 자기보고식 성격유형지표이다.

MBTI가 추구하는 검사의 목적은 자기보고식 검사를 통해서 인식과 판단과정에서 보여지는 인간의 근본적인 선호도를 알아내고 그 선호도가 개별적이거나 복합적으로 한 사람에게 작용되어진 결과들을 예측하여 여러 가지 실제적인 도움을 얻으려는 데 있다.

상담이나 심리치료 이외에도 조직체의 인사관리나 교육현장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전문가들에게 널리 사용되고 있다. 진단 위주의 심리검사보다는 자신의 성격유형을 이해하고 장, 단점을 파악함으로써 더 나은 인격과 성격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얻는다는 데서 매우 긍정적인 지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사주명리학 이론을 기본으로 한 사람의 연월일시를 통한 자료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성격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제공해준다. 여기에서 한 사람의 성격을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작업이며 사회생활에서나 여러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그러한 점에서 한 사람의 성격적인 특징을 명리학 외의 이론인 MBTI 이론과 연관지어 살펴보는 의의가 있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명리학 이론만을 가지고 사주명식을 분석 통계내는 작업을 초월하여 본 학문외의 MBTI 이론을 접목시켜 연관성있는 연구를 하여 다양한 학문적 교류와 발전을 꾀하며 성격에 대한 연구를 더욱 다각도로 접근하고자 하는 데에 본 연구의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 서울대 물리학과 오세정 교수는 ‘물리학의 커다란 발견은 인문사회학적 상상력을 발휘해 한 단계 뛰어넘는 사고를 했을 때 나온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어느 학문이든 서로의 벽을 쌓기보다는 장점을 서로 수용하여 단점을 보완하면서 발전해야 서로가 상생하는 관계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인간성격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통하여 보다 과학적인 결론을 내어보고 타 학문과의 접목을 시도하는 가운데 명리학이 운을 논하는 이상의 가치를 지닌 성격이론으로서도 손색없는 학문임을 밝히고자 하

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기존의 모든 자기보고식 검사지는 일정한 연령이 되어 글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후에야 검사가 가능하다. 시기에 따른 물리적, 심리적 환경의 영향에도 많은 변수가 있으며 피검사자의 보고가 아닌 관찰이나 다른 방법의 검사는 검사를 실시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조건에 의한 영향도 크다. 그러나 생년월일시의 정보만으로 검사가 가능한 사주명리학적 적용은 이러한 변수의 영향없이 출생 직후부터 다양한 검사가 가능한 방법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이러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성격유형검사인 MBTI의 4가지 지표와 사주와의 관계성을 밝혀 보다 다양한 학문적 시도와 성격에 대한 새로운 검사를 하고자 하는 데에 필요성과 목적이 있는 것이다.

C. 연구의 제한점

가.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 형식(self-report format)에 의한 설문지를 활용하여 비교분석하였으므로 사주자체에 의한 정보외의 설문에 의한 정보는 환경적 요인과 감정적인 여건에 따른 변수가 있을 수 있다.

나. 본 연구는 250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으므로 연령별, 지역별로 다양하지 않을 수 있다는 표집의 한계성이 있다.

다. 본 연구에서는 성격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을 모두 적용한 것이 아니라 오행과 관련된 질문과 MBTI 이론 중에서도 4가지 선호경향만을 한정지어 연구했다는 한계성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A. 사주명리학 이론

1. 개념과 학사의 고찰

사주명리학이란 역학이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진 학문으로서 사주란 8개의 글자가 생년월일시에 따라 4개의 기둥모양으로 이루어지므로 사주라 칭하며 음양오행에 그 철학적인 근원을 두는 학문이다. 그 역사와 전통은 매우 오래 되었으나 고대 중국에서는 『주역』에 의한 음양학설이 먼저 존재했었고, 그 이후에 춘추전국시대에 이르러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으로 태양계의 영향을 받은 오행성으로 운명을 예측하는 오행학설이 전해지기 시작하여 이 음양학설과 오행학설이 만난 음양오행학설이 그 철학적 근원을 이루게 된 학문이다. 현재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의 10천간과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의 12지지를 가지고 시간을 기록한 것은 동한 순제 서기 126년 이후의 일로서 중국에서는 학문을 많이 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주로 연구하던 학문이었다. 서적으로는 당나라말 송나라초 이허중의 『이허중명서』, 서자평의 『연해자평』, 명나라 장남선생의 『명리정종』, 만육오의 『삼명통회』, 유백온 선생의 『적천수』, 청대에는 진소암 선생의 『적천수집요』 『명리약언』, 청나라 중엽 심효첨 선생의 『자평진전』, 임철초 선생의 『적천수천미』, 1935년 서락오 선생의 『난강망』 『궁통보감』이 있으며 근대에는 위천리 선생의 『명학강의』와 『팔자제요』, 하건충 선생의 『팔자심리학』 등이 있다.

四柱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한 시점에 대하여, 또는 사주학의 창시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학설이 난무하고 있다. 서자평 기원설, 이허중 기원설, 원천강 기원설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원에 대한 여러 주장이 있지만 현재의 사주명리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서자평의 자평명리

학으로서 이때부터 명리학은 이론적 발전을 더하여 갔으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부분을 이루고 있다.

서자평은 고법 사주학의 이론을 거의 대부분 폐기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사주학을 정립하였다. 출생 연월일시의 四柱干支를 운명 추론에 이용한다는 공통점을 제외 한다면 고법 사주학과 신법 사주학은 별개의 학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극단적으로 학설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서자평 이후의 사주학 연구자들은 서자평을 진정한 의미의 사주학의 창시자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서자평은 『珞瑜子三命消息賦註』, 『玉照神應眞經註』, 『明通賦』를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에서 『낙록자삼명소식부주』와 『옥조신응진경주』는 주석을 달면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한 것이고, 『명통부』는 자기의 저술이라고 알려져 있다. 중국 문화의 전통에는 주석을 달면서 저술을 하지 않는 풍토가 있었는데 서자평 역시 그런 셈이다.

『낙록자삼명소식부주』는 서자평의 주석을 통해서 신법 자평학이 진면목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사주학 역사상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사주명리학의 역사에서 의의를 가지는 내용이므로 그 중요한 내용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 四柱에 대하여 : 서자평은 사주를 本命(年柱), 生月, 生日, 生時라고 정의한다. 이것은『이허증명서』를 비롯한 고서에서 사주를 胎月日時라고 정의한 것과 다른 점이다. 고법에서는 태월일시의 사주에 년주를 합하여 五柱로 論命하였는데, 서자평이 사주란 年月日時라고 정의한 것이다. 고법에서 사용하던 태월이 사주에서 사라진 것이다. 이것은 현재까지 사주학에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

*八字에 대하여: 서자평은 연월일시의 천간 4자와 지지 4자를 합해서 八字라고 정의하였고, 이것이 현재까지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

*三元에 대하여: 서자평은 본명, 생월, 생일, 생시의 四柱마다 三元이 있다고

하는데, 삼원이란 天元, 地元, 人元이라고 말하고 있다. 천원은 천간, 지원은 지지, 인원은 지지 속에 들어있는 천간 곧 支藏干이다. 고법에서는 년주의 천간을 祿, 년주의 지지를 命, 년주의 납음오행을 身이라고 하며, 이 祿, 命, 身을 三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서자평이 삼원의 개념을 변경시킨 것이고, 서자평의 삼원설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고법에서는 년주를 중심으로 하여 삼원을 정하고 태월일시는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었으나 서자평은 일간을 중심으로 놓고 사주 전체의 천간과 지지와 지장간을 골고루 사용한 것인데, 이것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納音: 서자평은 납음을 한번 언급했을 뿐이고 사주판단에 사용하지 않았다. 현대 사주학이 납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大運과 小運에 대하여: 고법에서는 대운, 소운, 氣運을 보았는데, 서자평은 대운과 소운을 보고 기운을 보지 않았다. 서자평은 대운을 정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현대 사주학 역시 서자평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

*太歲에 대하여: 서자평은 출생한 해의 태세와 매년 돌아오는 태세를 설명하고 있다. 매년 돌아오는 태세를 行年太歲, 逐年太歲, 流年歲命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현대에도 일년 운세를 볼 때 行年太歲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고 있다.

*五行의 계절별 強弱에 대하여: 서자평이 사주 간지의 오행이 계절에 따라서 일년 12월에 따라서 生死休旺하는 이치를 밝히면서, 음간과 양간이 12운성이 다르게 배치되지 않고, 甲乙木이 同生, 同死, 同休, 同旺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점은 현대명리학 중에서도『滴天髓』가 음간과 양간이 同生同死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비해서 고법『李虛中命書』에서는 陰生陽死를 주장했다.

*支藏干에 대하여: 서자평은 ‘지지 속에 인원이 있다.’ 혹은 ‘지지 속에 천원이 들어있다.’ 라고 하였는데, 서자평은 천간과 지지의 관계를 천간끼리의 관계로 환산하였다. 그것은 지지를 천간으로 환원하는 지장간 이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또 그 때문에 六神을 배정할 수가 있었다고 할 수가 있다. 이 지장간 학설은 당연히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다.

*六神에 대하여: 서자평은 命星이라고 육신을 부르고 있다. 육신은 현대 사주학에서도 필수불가결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육신에 六親을 배정하는 원리 역시 설명하고 있는데, 관성을 남편으로, 재성을 처와 부친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현대까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六親의 위치 배정에 대하여: 서자평은 육친을 사주의 연월일시 위치에 배정하고 있다. 년은 조상궁, 월은 부모궁, 일은 자기와 배우자궁, 시는 자식궁으로 배정하였다. 이 이론 역시 현대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強弱에 대하여: 서자평은 간지 오행의 강약을 12월에 배정하여 논하면서 지장간에 通根했는가를 검해서 보고 있다. 節氣의 深淺에 따라서 오행의 強弱이 변하는 학설은 현대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특히 일간의 강약을 따지는 것은 抑扶用神을 정하는 핵심 요건이 되고 있다.

*부귀, 빈천, 길흉, 질병, 운세, 품성 등에 대해서: 서자평은 그런 항목을 판단하는 원리 역시 설명하고 있는데, 대부분 현대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¹⁾ 지금까지 사주명리학에 기본을 세운 인물과 이론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는데 다음으로 우리나라 사주명리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 나라에서 명리학 발전의 근원이 되는 『주역』에 관한 교육이 시작된 것은 고구려 소수림왕 2년에 태학이 세워지면서 시작되었고, 조선시대에는 성균관에서 태조 7년에 『주역』을 가르쳤는데 『대학』 1개월, 『중용』 2개월 『논어』와 『맹자』 각각 4개월에 비하여 『주역』은 7개월을 가르쳤던 중요한 학문이었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관상감을 두어 과거를 통해 인재를 등용하면서 국정의 안위를 위해 활용하던 중요한 학문이었다. 그러나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으로 일제시대부터 그 발달이 저조하게 되었고 현재 인간의 삶에 지표를 밝히는 학

1) 이용준 (2004), 『사주학의 역사와 격국용신론의 변천과정 연구』, 경기대학교 국제문화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문으로서의 입지가 부족한 가운데 하나의 흥미거리로서의 인식이 더욱 문제인 상황이다.

그러나 대학이라는 제도권 안으로 이 학문이 정식으로 흡수되었고 다양한 논문이 발표되고 있으며 2006년 10월에는 한국사주심리학회가 사단법인으로서 발족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2002년 경기대학교 국제대학원에 명리학전공 석사과정을 비롯하여 충남공주에 소재한 공주국립대학교 대학원에 역리학과, 2005년 충남청양 소재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에서 철학(명리)교육 석, 박사 과정 및 원광 디지털대학교 얼굴경영학과, 경주소재 서라벌대학의 풍수명리학과, 동방대학원대학교의 미래예측학과를 들 수 있으며 이외에도 대학 사회교육원에서 다양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속에서 본 논문과 같이 사주명리학 이론만이 아닌 MBTI와 같은 성격이론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시도와 더불어 사주명리학을 세계적인 학문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학문의 벽은 쌓을수록 고립되며 벽을 허물고 서로의 장점을 수용할 때에 더욱 고유한 장점을 살리고 상생하는 길이 된다는 신념으로 이 논문은 MBTI이론과의 접목을 시도하고 상관관계를 연구하여 보다 다양한 학문적 발전의 토대를 다지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사주명리학의 이론에서 본 연구와 관련된 이론을 제시하고 MBTI 이론과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살펴볼 것인가를 알아보겠다.

2. 이론의 형성 배경

사주는 십천간과 십이지지 모두 22개의 글자들 중에서 8개의 글자가 4개의 기둥을 이루어 구성된다. 천간(天干)은 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로서 열 개의 천간을 말하는 것으로 사주를 구성할 때 필요한 육십갑자를 이루는 과정의 천간을 말한다. 열 개의 천간은 양으로, 음인 열 두 개의 지지(地支)가 짝

을 이루며 나가는 부호(符號)이다. 간지(干支)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의 기원 및 그 근거에 대한 것은 사학의 태종(太宗)이라 할 수 있는 연해자평에 기술되어 있다.

지지(地支)는 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로서 열두 개의 동물로 배속되어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출생한 해년의 띠별로 동물적인 관계를 전통 민속적 사상을 받아들이며, 새해를 맞거나 삼재의 원리에 동물의 신적 영험을 통한 길흉관계를 예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열두 띠 동물을 나타내는 것을 십이지(十二支)라고 하며 땅을 상징하는 지지에 해당하니 크게는 음(陰)으로 분류한다.

천간은 하늘을 상징하며 양에 해당하고, 지지는 땅을 상징하며 음에 해당한다. 십간과 십이지가 한 번씩 상교(相交)하면 60이 된다. 甲이 子를 만나 甲子가 되고 乙이 丑를 만나 乙丑이 된다. 순서대로 계해(癸亥)까지를 육십갑자라 하고 다시 갑자가 되는 데 이것을 환갑이라고 한다. 육십갑자는 은(殷)나라 날짜를 세는데 쓰였고, 십이지는 달을 세는데 쓰였다고 한다. 육십갑자는 출생연주, 월주, 일주, 시주에 적용되어 사주(四柱)가 된다. 아래는 태어난 생년월일시의 정보를 활용하여 사주를 구성한 예이다.

2006년 양력 9월 1일 오후 12시 10분 출생 (남자)

<사주구성사례>

時 日 月 年
戊 癸 丙 丙
午 巳 申 戌

2대운

甲 癸 壬 辛 庚 己 戊 丁
辰 卯 寅 丑 子 亥 戌 酉

위와 같이 사주가 구성되며 각 글자에는 음양과 오행이 배속되어 있게 된다. 또 이 글자들은 각자의 독특한 심성(心性)이 내포되어 있으면서도 상생과 상극, 회합(會合 : 결속)과 상충(相沖 : 배타)등을 하며 오묘하고 수없이 많은 인간의 내면적 심성과 물질적 작용을 표면화 시키는 것은 물론, 성격특성과 흥미, 가치관, 타고난 지능, 선천적성 등을 검사할 수 있고, 또 외부와의 작용으로 인하여 삶의 방향이 변(變)하고, 자신의 능력이나 학업 및 직업관계, 부귀빈천 등의 변화를 예측 판단하는 인생 청사진(靑寫眞)과 같은 것이다.²⁾ 과거에는 위와 같은 일간 중심의 사주학이 아니었으나 서자평³⁾의 등장으로 이렇게 일간 중심의 사주학이 발전하였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밝혀놓았다.⁴⁾

여기서 본 논문은 사주를 구성하는 많은 글자 중에서도 일간과 월지라는 계절적인 개념이 한 사람의 성격적인 면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일간과 월지의 오행과 십성이 MBTI 선호경향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성격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3. 오행과 심성의 원리

십성은 오행의 상생상극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먼저 오행의 상생상극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상생이란 하나의 오행이 하나의 오행을 위해 생해주는 관계로서 (木生火)·(火生土)·(土生金)·(金生水)·(水生木)이 이루어지는 관계이다. 일간을 기준으로 사주명식 내 간지에서 이루어지며 상생은 배려와 희생정신이 우선 수반되며, 자신의 성장, 특기와 노하우, 노력과 서비스 정신을 기반으로 하여 활동하는 동시 욕구충족, 소모와 소비, 배설, 과욕 등의 성정과 행동양식

2) 김배성 (2006), 『사주심리와 인간경영』, 창해

3) 자평학의 창시자. 고법 사주학의 이론을 거의 폐기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사주학을 정립한 인물로 저술로는 『낙록자삼명소식부주』, 『명통부』 등이 있다.

4) 이용준 (2004), 『사주학의 역사와 격국용신론의 변천과정 연구』, 경기대학교 국제문화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을 주조(主調)한다.

상극이란 상생과 반대로 하나의 오행이 하나의 오행을 극하는 관계로서 (木剋土)·(土剋水)·(水剋火)·(火剋金)·(金剋木)이 이루어지는 관계이다. 일간을 기준으로 사주명식 내 간지에서 이루어지며 상극은 억제와 권위정신이 우선 수반되며, 자신의 권력, 통제와 절제, 힘과 분배, 인내와 판단 정신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동시 과시욕, 과감성, 잔인, 지배, 억압 등의 성정과 행동양식을 주조한다.⁵⁾

즉, 오행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 상생과 상극을 반복하고 있다.

相生 : 수 → 목 → 화 → 토 → 금 → 수 (순환)

相剋 : 수 → 화 → 금 → 목 → 토 → 수 (순환)

명대의 만민영이 사주학의 모든 자료들은 모아 편찬한 사주학 백과사전 형식의 책인 『삼명통회』에서 오행의 상생과 상극에 관한 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행이란 것은 유행하고 서로 바뀌어 순리를 따르면 상생이고, 거역하면 상극이다.’⁶⁾

오행의 상생, 상극이란 자연계의 운동 변화의 법칙이며 자연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는 것이다. 만물은 오행의 상생과 상극의 작용에 의하여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⁷⁾

이러한 오행간의 관계를 자연의 이치를 참고로 하여 해석하는 조후론적인 입장에서 본 저술에는 명리학의 수필집과 같은 난강망을 서락오 선생이 다듬어 궁통보감으로 낸 저술이 있다. 이는 음양오행과 십간십이지의 성격을 자세

5) 김배성 (2006), 『사주심리와 인간경영』, 창해

6) 만민영 (2003), 『삼명통회』, 무릉출판사

7) 김종만 (2005), 『육신의 편중에 의한 성격특성 연구』, 경기대학교 국제문화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히 분석하고 각각 12개월로 나누어 이치로 대입시켜 설명하면서 기존의 격국을 중간중간 덧붙여 설명하고 있다. 즉, 인간의 길흉화복을 자연의 이치⁸⁾로 풀어 해석하는 방법인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오행의 고유한 특성만을 가지고 성격과 연관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오행에 대한 성격적인 내용은 성격이론과 관련지어 살펴볼 때에 다루고자 한다.

다음으로 十星은 四柱 내에서 일간을 기준으로 하여 연월일시에 있는 천간과 지지를 모두 대조하여 열개의 십성으로 표출한다. 『삼명통회』에서는 육신의 명칭인 효인, 식상, 관살, 겁재는 현재 육신이 명칭인 인성, 관성, 식상, 재성을 말하는 것으로 음, 양에 따른 생극제화를 상징하는 말이다.⁹⁾

- 비견(比肩) : 일간과 오행이 같고 음양이 같은 것
- 겁재(劫財) : 일간과 오행이 같고 음양이 다른 것
- 식신(食神) : 일간이 생해주는 것으로 음양이 같은 것
- 상관(傷官) : 일간이 생해주는 것으로 음양이 다른 것
- 편재(偏財) : 일간이 극하는 것으로 음양이 같은 것
- 정재(正財) : 일간이 극하는 것으로 음양이 다른 것
- 편관(偏官) : 일간을 극하는 것으로 음양이 같은 것
- 정관(正官) : 일간을 극하는 것으로 음양이 다른 것
- 편인(偏印) : 일간을 생해주는 것으로 음양이 같은 것
- 정인(正印) : 일간을 생해주는 것으로 음양이 다른 것

다음은 십성의 표출에 대한 천간 및 지지에 대한 도표이다

8) 정지호 (2003), 『조화원약 평주』, 삼한출판사

9) 김종만 (2005), 『육신의 편중에 의한 성격특성 연구』, 경기대학교 국제문화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표 II-1> 天干 十星 표출 도표

	比肩	劫財	食神	傷官	偏財	正財	偏官	正官	偏印	正印
甲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乙	乙	甲	丁	丙	己	戊	辛	庚	癸	壬
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甲	乙
丁	丁	丙	己	戊	辛	庚	癸	壬	乙	甲
戊	戊	己	庚	辛	壬	癸	甲	乙	丙	丁
己	己	戊	辛	庚	癸	壬	乙	甲	丁	丙
庚	庚	辛	壬	癸	甲	乙	丙	丁	戊	己
辛	辛	庚	癸	壬	乙	甲	丁	丙	己	戊
壬	壬	癸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癸	癸	壬	乙	甲	丁	丙	己	戊	辛	庚

<표 II-2> 地支 十星 표출 도표

	比肩	劫財	食神	傷官	偏財	正財	偏官	正官	偏印	正印
甲	寅	卯	午	巳	辰戌	丑未	申	酉	亥	子
乙	卯	寅	巳	午	丑未	辰戌	酉	申	子	亥
丙	巳	午	辰戌	丑未	申	酉	亥	子	寅	卯
丁	吾	巳	丑未	辰戌	酉	申	子	亥	卯	寅
戊	辰戌	丑未	申	酉	亥	子	寅	卯	巳	午
己	丑未	辰戌	酉	申	子	亥	卯	寅	午	巳
庚	申	酉	亥	子	寅	卯	巳	午	辰戌	丑未
辛	酉	申	子	亥	卯	寅	午	巳	丑未	辰戌
壬	亥	子	寅	卯	巳	午	辰戌	丑未	申	酉
癸	子	亥	卯	寅	午	巳	丑未	辰戌	酉	申

4. 격국과 용신과 성격심리

격국(格局)의 명칭과 의미는 하나의 사주구성이 완결된 후 일간오행에게 월지와 대입하는 것이며, 이 대입된 각각의 형태를 놓고 격을 갖추었다는 의미로 격국이라 하고, 또 각각의 형태에 따라 십성의 명칭을 붙여서 격명을 표현

한다. 격(格)을 통하여 사주그릇의 크기와 부귀빈천(富貴貧賤)의 무게를 가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짜임새를 말하는 것이다.

형성된 격국은 자신의 타고난 인간적, 물질적환경과 체질 및 기질등과 귀천을 파악할 수 있는 선제조건으로 격이 상(上)이면 귀격(貴格)이고 하(下)이면 천격(賤格)등의 여러 단계로 구분한다. 이와 같이 격국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적성과 사회적 성공여부에 대한 정도를 측정한다. 그런 측면에서 지능과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은 분명하다.

격은(比肩格·劫財格·食神格·傷官格·正財格·偏財格·正官格·偏官格·正印格·偏印格)으로 열 개의 격으로 편성되며, 예외로 일반 격을 벗어나 하나의 오행으로 편중된 (從食格·從財格·從官格·從印格)과 합의작용에 의한 변격(變格)으로 (化土格·化金格·化水格·化木格·化火格)이 있다.

이러한 격국¹⁰⁾의 발전에는 신법 사주학을 창안한 서자평이 있었으며 저술로 『삼명통회』에서는 각종 비결과 이론을 모두 소개하였으나 너무나 복잡하였고, 『명리약언』은 격국용신론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잡격을 배격하고 억부용신 한 가지만 강조하였다. 『자평진전』에서는 『연해자평』의 육신론에 입각해서 순용과 역용의 격국용신론을 설정하였고, 『적천수』는 4종격을 주창하여 격국용신론을 더욱 발전시켰다.

용신(用神)의 근본 어의(語義)는 소용지신(所用之神)의 준말이다. 어떤 사주를 막론하고 완전무결한 사주는 없는 것이다. 즉 일주를 중심으로 재성(財星), 관성(官星), 인성(印星), 식상(食傷)이 고르게 균형을 이루기란 인간이 완벽하지 못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용신의 취용법이 매우 중요하고 복잡하여 용신만 정확하게 설정한다면 사주감정의 80%는 끝난 셈이라 하는 것이다. 용신을 정하는 법에는 다섯 가지의 원칙에는 억부용신(抑扶用神)법, 조후용신(調候用神)법, 통관용신(通關用神)법, 병약용신(病藥用神)법, 전왕용신(專旺用神)법으로 원리를 이

10) 이용준 (2004), 『사주학의 역사와 격국용신론의 변천과정 연구』, 경기대학교 국제문화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용하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 각각 사용하는 원리가 다르다.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팔자의 음양과 오행의 조화와 균등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말하는데 조후와 절기로써 참작해야하고 격국이 있어 격국용신이 정해져 있으니 이것을 모두 참작하여서 보아야한다.

용신은 일주(日柱), 격국(格局)과 더불어 삼위일체가 되니 삼자(三字) 모두를 대비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한 국가로 비유하면 일주는 통치권자(君主)이며 격국은 내각이고 용신은 내각을 총괄하는 국무총리(首相)와 같다. 또 차주(車主)는 일주이며, 승객은 격국이고, 운전기사는 용신이 된다. 따라서 차주와 승객과 운전기사가 함께 동승하고 목적지를 가지만 이 모든 사람들의 안전은 결국 운전자(용신)에게 달린 것이다. 그러므로 운에서 용신을 잘 도우면 발전하고 용신을 극하면 어려움에 봉착하여 사업가는 실패하며 학생은 시험에 떨어지는 등 사주 일주인 자신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운명추론의 요체는 바로 용신이 된다.

사주의 대체적인 성패(成敗)는 용신과 관계되지만 심리적으로 나타나는 성향이나 직업적성의 활용성은 사주의 환경에서 나타난다. 특히 용신의 작용은 한사람의 부귀빈천과 학업의 성과에 많은 영향이 있으며 지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주에서 격국과 용신은 각기 다른 명칭을 갖고 있지만 별개의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격국용신은 누구나 사주를 구성할 때 십간(十干)의 하나로 자신이 정해지며 월지와 생극비화(生剋比化)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기후(氣候)가 관여되면서 하나의 사주가 근본적인 체질(유전적요인)이 드러남을 볼 수 있는 것이 격이라고 본다. 그 사주가 갖게 되는 음양의 체질로부터 절실히 요구되는 음양과 보충되어야 하는 오행이 바로 용신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격국과 용신은 하나의 사주체질로부터 정확히 무엇이 요구되는가를 동시에 알게 되는 시스템(system)과 같다. 사주의 신강과 신약, 오행의 소통관계, 기후관계, 등을 참고하여 설정하는 원리의 명칭이다. 사주에서는 기신이 해를 준다

지만, 어느 집이나 화장실이 있어야 집안의 실내가 깨끗이 유지될 수 있듯이, 정신적으로는 힘드나 재물은 불어날 수 있는 것처럼 정신은 안정되거나 지능이 높아도 공부에 흥미가 없을 수 있는 이원적(二元的)작용은 있을 수 있다.¹¹⁾ 지금까지 사주명리학의 역사와 본 논문과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성격이론과 관련지어 사주명리학과 MBTI 선호경향에서 살펴볼 수 있는 성격적인 면의 연관성에 주목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B. 성격이론

1. 성격의 개념

가. 성격의 정의

본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성격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와 이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다. 다음은 성격의 정의를 어원적으로 내려 보고 여러 성격학자들이 내린 정의를 소개해 보겠다.

성격이란(personality)이란 말은 어원적으로 탈 혹은 가면의 뜻을 함축한 라틴어 페르조나(persona)를 내포한 말로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개인의 모습 및 특성을 나타낸다.

즉, 겉으로 드러나 탈의 모습을 통해 그 사람의 성격을 미루어 알 수 있다는 말이다. 융(Jung)¹²⁾은 페르조나를 적응의 원형으로 지적한 것도 겉으로 드러

11) 김배성 (2006), 『사주심리와 인간경영』, 창해

12) 지크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영향을 받아 분석심리학의 기초를 세웠고 외향성·내향성 성격, 원형(原型), 집단무의식 등의 개념을 제시하고, 발전시켰다. 그의 업적은 정신의학과 종교·문학 관련 분야의 연구에 영향을 미쳤다

난 탈인 개인의 성격을 함축하고 있다.¹³⁾

성격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견해는 성격심리학자가 성격을 연구하는데 설정하는 가정에 따라 달라진다. 즉, 성격이론가들은 그들이 보는 인간에 대한 입장을 바탕으로 성격의 정의를 다양하게 내려왔다. 따라서 성격의 정의는 성격을 연구하는 이론가만큼 무수히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성격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이렇다라고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성격심리학자들이 제시한 몇 가지 성격의 정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 Allport - 성격은 개인의 특유한 행동과 사고를 결정하는 심리신체적 체계인 개인 내의 역동적 조직이다.

■ Mischel - 성격은 보통 개인이 접하는 생활 상황에 대해 적응의 특성을 기술하는 사고와 감정을 포함하는 구별된 행동패턴을 의미한다.

■ Maddi - 성격은 사람들의 심리적 행동(사고, 감정, 행위)에 있어 공통성과 차이를 결정하는 일련의 안정된 경향성과 특성이다. 이러한 심리적 행동은 시간에 따른 연속성을 가지며 어떤 순간의 사회적 및 생물학적 압력의 단일한 결과로서 쉽게 이해될 수 없다.

■ Ryckman - 성격은 개인이 소유한 일련의 역동적이고 조직화된 특성으로서 이러한 특성은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의 인지, 동기, 행동에 독특하게 영향을 준다.

13) 노안영외 (2006), 『성격심리학』, 학지사

■ Carver & Scheier - 성격은 인간의 행동, 사고, 감정의 특유한 패턴을 창조하는 심리신체적 체계인 인간 내부의 역동적 조직이다.

■ Burger - 성격은 일관된 행동패턴 및 개인 내부에서 일어나는 정신내적 과정이다.

이런 다양한 성격의 정의를 학자들은 말하고 있는데 이런 정의를 바탕으로 성격이란 말이 의미하는 바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성격은 인간의 사고 감정 행위를 포함한 일련의 행동과 관련하여 이해될 수 있다. 성격은 관찰할 수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바탕으로 판단되는 것을 의미한다.

▣ 성격은 인간 적응의 측면을 반영한다. 즉 삶은 적응의 과정이며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 자신의 성격을 발달시키고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 성격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공통성을 대표한다. 사람들을 어떤 성격의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은 서로가 공유하는 행동적 특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내향성 혹은 외향성으로 분류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갖는 성향을 의미한다.

▣ 성격은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 개인의 독특성 혹은 개인차를 반영한다. 즉 성격연구는 사람들의 공통성뿐 아니라 인간 개개인이 갖는 독특한 측면 혹은 개성에 대한 탐구에 관심을 둔다.

■ 성격은 비교적 일관되고 안정적인 행동패턴과 관련된다. 성격을 통해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언하는 것은 성격의 일관성이나 안정성을 반영한다.

■ 성격은 개인 내부의 역동적이며 조직화된 특성을 반영한다.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접해 비교적 일관성있게 행동하는 이유는 개인의 조직화된 특성과 관련되기 때문이다.¹⁴⁾

이러한 성격의 정의와 학자들의 연구를 통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성격은 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서 어느 한 패턴을 가진다고 보는 견해가 많으며 이로서 한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예견해 줄 수 있는 통로라고도 보여진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은 한 사람의 고유한 특성도 되지만 환경적인 영향으로도 형성될 수 있다는 변수를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많다. 하지만 그 사람의 가장 중심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성격형성에 중심이 되는 독특한 것으로서 성격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나. 성격연구의 역사

성격연구의 역사는 인간이 서로에 대한 개인차를 인정하고 다름을 알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차를 고대 사람들은 태어난 별자리나 계절이나 자연현상과 결부지어 말하기도 했다. 성격의 역사에 대하여 간단히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4) 노안영외 (2006), 『성격심리학』, 학지사

<표 II-3> 성격 연구의 역사 15)

400 B.C.	히포크라테스가 체형(body types)과 성격 특징을 연관시킴
200 A.D.	갈렌이 체액에 대한 히포크라테스의 이론을 기질과 연관시킴
1800년 경	갈(Franz Gall)과 스퍼자임(Johann Spurzheim)이 골상학을 개발함
1884	갈튼(Francis Galton)이 단어연상과 행동 표본 기법이 포함된 성격 측정 방법을 발표함
1900	프로이트가 ‘꿈의 해석’을 출간함
1905	융이 단어 연상 검사를 사용하여 정신의 복합적 측면을 탐지하고 분석하였음. 최초의 실용적 지능검사인 비네-시몬 검사가 출판됨
1920	로르사크의 잉크반점 검사가 출판됨, 왓슨과 레이너(Rayner)의 꼬마 알버트(Little Albert)의 흰쥐에 대한 조건화된 공포에 관한 연구가 발표됨
1925	크래즈머가 체격(Body build)과 성격 그리고 정신장애와의 관련성을 발표함
1935	머레이(Henry A. Murray)와 모건(Christian Morgan)이 TAT검사를 개발함
1937	올포트가 ‘성격:심리적 해석’을 출판함
1942	셀톤과 스티븐스가 체격과 기질과의 관련성을 연구하여 발표함
1943	하썬웨이(Starke Hathaway)와 맥킨리(Fred Mckinley)가 MMPI를 출판함
1950	달라스와 밀리의 ‘성격과 심리치료’가 출판됨
1951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 치료’가 출판됨
1952	미국정신의학회가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I’를 출판함
1954	매슬로우가 인본주의 관점을 도입함
1955	캘리의 ‘개인 구성개념 심리학(Psychology of Personal Constructs)’이 출판됨
1961	반두라(Albert Bandura)가 사회학습 이론에 대한 개념들을 발표하면서 ‘인지혁명’이 시작됨
1968	미첼이 ‘성격과 평가(Personality and Assessment)’를 출판함
1970-1990	성격 평가 절차 및 도구들을 설계하고 실시하고 채점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컴퓨터의 사용이 증가함
1975-1980	행동 평가 기법들에 대한 관심과 개발이 증대됨
1989	MMPI-II가 출판됨

15) 노안영외 (2006), 『성격심리학』, 학지사

2. 성격에 대한 연구

가. 성격에 대한 관점

성격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 졌지만 그 중에서 성격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른 성격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신역동적 관점 : 프로이트¹⁶⁾의 정신분석적 접근, 신정신분석적 접근

정신의 에너지와 인간행동이 결정되는 상황적 맥락, 정신과 환경의 상호 작용 등에 따라 성격이 역동적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입장

-성향적 관점 : 올포트, 캐텔 등의 특질이론과 아이젠크의 생물학적 입장

인간의 성격을 나타내는 비교적 안정적인 특질이 있으며 이러한 특질은 문화에 따라 공통적인 특질 및 사람들을 구별해주는 독특한 특질이 있다는 것을 가정

-행동 및 사회학습 관점 : 스키너¹⁷⁾의 신행동주의 반두라 및 로터의 사회학습 이론. 정신내부 보다는 관찰할 수 있는 행동 및 행동 변화에 초점을 둔 행동주의의 가정에 근거한다. 하지만 현대 심리학의 추세에 따라 반두라와 로터는 학습에서 인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인본주의적 관점 : 마슬로우의 자아실현이론¹⁸⁾ 로저스의 인간중심접근 실

16) 프로이트(1856-1939). 오스트리아의 신경학자. 정신분석의 창시자. 지크문트 프로이트는 당대 최고의 지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있다. 그의 정신분석학은 인간의 정신 및 정신병 치료에 관한 이론인 동시에 문화와 사회를 해석하는 시각을 제공하는 이론이다. 반복되는 비판과 논박, 수정에도 불구하고 프로이트의 연구는 그의 사후에도 유력한 분야로 계속 남아 있다.

17) 스키너(1904-1990). 미국의 심리학자. 미국의 심리학자. 행동주의의 대표적 인물로 꼽힌다. 행동주의는 환경에 대한 생리적 반응이라는 관점에서 인간행동을 바라보며 인간의 본성을 밝히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반응에 대한 통제된 과학적 연구를 지지한다.

18) 마슬로우(1908-1970). 마슬로우의 욕구의 5단계 중 한 가지로서 인간의 욕구가 피라미드형으로 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s), 안전욕구(safety needs), 사회적욕구 (social needs), 존경의 욕구(esteem needs), 자아실현의 욕구(self-actualization needs)를 의미한다.

존주의적이론. 철학적 입장으로 현상학과 실존주의를 바탕으로 인간의 자유 의지를 강조하는 입장.

- 인지적 관점 : 켈리의 개인 구성개념 이론 엘리스와 벡의 성격에 대한 인지적 접근을 포함. 인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개인이 갖는 인지에 따라 정서 및 행동이 영향을 받는다는 입장.

나. 성격 이론의 평가 준거

성격이론은 인간의 성격에 대하여 다양한 이론들을 내세우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평가 준거를 갖추어야 한다.

- 포괄성 : 훌륭한 성격이론은 인간성격에 대한 단편적 지식을 제공하기보다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인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성격이론이 타당한 심리적 현상, 행동, 행동간의 관계 등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좋은 이론이라 할 수 있다.

- 검증성 : 좋은 이론은 명확하게 기술되고 측정될 수 있는 개념을 가져야 한다. 정확한 검증성을 기하기 위해 많은 연구에서 심리적 현상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린다.

- 경제성 : 적절한 이론은 가능한 한 단순하고 경제적이어야 한다. 즉 이론은 어떤 영역의 다양한 자료 및 현상을 경제적이고 일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나 가져야한다.

- 경험적 타당성 : 적절한 이론은 지지해 주는 자료를 통해 경험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론에 대한 경험적 타당성은 가설검증을 통해 결정된다.

- 탐구성 : 탐구성의 준거는 이론이 절대적이 아니라 도전 받을 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연구를 촉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은 높은 탐구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의 이론은 많은 도전을

받았으며 수없이 많은 다른 이론을 탄생시켰기 때문이다.

-적용성 : 적절한 성격이론은 인간의 삶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좋은 성격이론은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현실 생활에 적용 가치를 갖는 게 필요하다.¹⁹⁾

이러한 준거를 잘 갖추어야 성격이론으로서의 인정이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준거에 사주명리학을 활용한 성격검사는 위의 여섯 가지의 준거를 잘 갖춘 이론이라 생각된다.

다. 성격 검사 도구²⁰⁾

한 개인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지배하는 성격은 지속적이라는 특성을 가지므로 측정이 가능하다면 측정하여 다양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다. 그러한 노력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한 개인의 앞으로의 행동에 대하여서 예견이 가능하므로 그 의의를 지닌다. 그러면 이러한 성격을 검사하기 위한 도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먼저 성격검사는 크게 객관적 검사와 투사검사라는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객관적 검사는 대개 수많은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검사대상자는 예를 들면 '나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거나 '나는 나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따위의 질문에 대해 '그렇다' 또는 '아니다'로 대답해야 한다. 이런 검사는 실시하기도 쉽고 채점도 간편하며, 객관적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여러 개인의 검사 결과를 비교할 수도 있다. 이런 유형의 검사 가운데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미네소타 다면적 성격검사'(MMPI)이다. 응답자는 9가지 임상 기준, 예를 들면 우울증이나 분열적 성격, 또는 과대망상증 같은 기

19) 노안영외 (2006), 『성격심리학』, 학지사

20) 성격은 이론적 접근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 성격검사도 이러한 여러 이론에 기초하여 제작되므로 다양한 종류의 성격검사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준에 대해 각각 채점된다. 이 가운데 어떤 기준의 점수가 높을수록, 그 사람은 거기에 해당하는 정신장애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 이 외에도 '캘리포니아 심리특성 검사'(CPI), MBTI 등이 있으며 적성검사와 관련된 검사에는 홀랜드 진로발달 검사나 STRONG검사 등이 있다.

투사검사는 검사대상자에게 2가지 이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극을 주고, 거기에 대해 말해보라고 요구한다. 이것을 투사검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검사대상자가 자극에 대해 자신의 성격을 투사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투사검사 가운데 보다 잘 알려진 것은 '로르샤흐 검사법'이다. 이 검사법에서는 검사대상자가 10개의 잉크 얼룩무늬를 보고 그 무늬에서 연상되는 것을 말로 표현해야 한다. 검사대상자의 반응은 잉크 얼룩에서 지각(연상)한 것의 위치, 검사대상자가 강조한 자극의 특징(예를 들면 형태나 색깔), 지각의 내용, 운동지각, 지각의 수에 따라 점수가 매겨진다. 또 다른 투사검사법인 '주제통각 검사'(TAT)는 조사대상자에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일련의 그림을 보여주고, 그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보라고 요구한다.²¹⁾

3. 사주명리학의 성격이론

지금까지 성격의 개념과 성격연구에 대한 이론적인 발전단계를 살펴보았다. 그러면 사주명리학에서는 한 사람의 성격을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사주명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인 음양오행론은 한 사람의 성격적인 면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므로 음양과 오행에 따른 성격적인 특성을 알아보겠다.

다음으로 사주의 주인공을 의미하는 일간은 가장 강력한 성격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글자이며 이 일간은 10개의 천간으로 이루어지므로 십천간에 따른 성격적인 특성을 살펴보고 음양오행의 생극관계에서 발생하는 십성별로 발현되

21) 한국교총 원격연수원 (2006), 『심리검사의 이해와 학생상담』

는 성격적인 특성을 다음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음양오행의 성정

음양이란 단어가 제일 먼저 거론된 문헌은 黃帝와 岐伯과의 대화를 기록한 『黃帝內經』²²⁾ 「素問」 <四氣調神大論>라고 한다. 여기서는 음양에 관한 기원보다는 그 성격적인 면에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중심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이외에 음양은 다음과 같은 심리적인 특징을 지닌다.

<표 II-4> 음양의 심리적인 특징²³⁾

음	양
수축심리. 은폐심리. 내밀성, 내향성. 수용성. 축소. 검소, 수수함. 반작용력, 냉소적, 우울, 애증. 무의식. 꿈. 참고서. 침묵	팽창심리. 개방심리. 실험성. 외향성, 배타성. 확대. 낭비. 화려함. 작용력, 희망적, 명랑, 사랑. 의식. 현실. 교과서. 웅변

이처럼 음양은 한 사람의 성격적인 면에서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오행은 더욱더 다양한 성격적인 특징이 두드러진다.

오행설은 음양이론과 마찬가지로 고대 중국인들의 세계관과 자연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중국 고대문헌에서 최초로 오행설에 대한 언급을 받

22) 황제내경 : 한의학계의 성서로 인정되며 가장 오래 된 중국의 의학서로 내경이라고도 한다. 중국 신화의 인물인 황제와 그의 신하이며 천하의 명의인 기백과 구유구 등과 의술에 관한 토론을 기록한 것으로 18권중 전반 9권은 素問, 후반 9권은 靈樞로 구분된다. 소문은 天人合一說・陰陽五行說 등에 입각한 병리학설을 주로 하고 영추는 鍼灸와 導引등 물리요법을 상술하고 있다.

23) 김배성 (2006), 『사주심리와 인간경영』, 창해

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상서 尙書〉의 홍범(洪範)으로서, 홍범구주(洪範九疇)의 첫번째가 바로 오행이며 그 순서는 수·화·목·금·토로 되어 있다. 이러한 5가지 요소는 이른바 민용오재(民用五財)라는 것으로, 고대인의 생활에 불가결했던 5가지 재료를 가리키는 것이며, 그 순서도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물과 불에서 시작해서 생활자재인 나무와 쇠붙이를 거쳐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흙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순서는 〈예기 禮記〉의 월령(月令)에 나타난 목·화·토·금·수의 오행상생(五行相生)의 순서나, 제(齊)나라 추연(鄒衍)이 정한 토·목·금·화·수의 오행상승(五行相勝)의 순서로 변모된다. 또한 이 홍범은 음양오행설만이 아니고 그 시대의 국가관이고 세계관 인간관이 포함된 내용이었다.

목화토금수 오행을 성격적인 면과 관련지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면서 성격형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물상적인 면과 관련지어 생각하면 더욱 이해가 쉬워지나 오행은 근본적으로 기운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즉, 木의 성정은 仁으로 의욕, 정신, 의지를 나타내고 한 없이 자라하고자 하는 속성을 가진다. 火의 성품은 禮로서 예의 바르고 명랑하며 위로 치솟아 오르고 넓게 퍼지는 속성을 가진다. 여기서 목화는 시작과 확산의 의미가 강하므로 음양 중에서도 양에 가까운 성정을 나타내며 외향적이고 발산하는 특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으며 보다 성격적인 특성이 확실한 화는 드러나고 감정의 영향을 더 받게 된다.

土의 성정은 信으로 신용이 있고 참되며 중용을 지키고 만물을 감싸고 보호해주는 속성을 가진다. 또한 만물을 키우듯이 많은 이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성정을 지닌다.

金의 성정은 義로서 의리와 결단성이 있으며 사물을 수렴하고 변형시키며 자르는 속성이 있다. 水의 성정은 智로서 슬기롭고 기획력이 뛰어나면서 변화하고 적응하고 끝없이 흘러가는 속성이 있다. 자신 스스로가 변화하는 오행이므

로 적응력이 뛰어나고 융통성을 가진다. 오행에 대한 내용은 천간으로 이루어지는 일간의 성정에서 음양적인 면, 오행적인 면과 관련지어 더욱더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알아보기로 하겠다.

나. 일간의 성정

다음의 내용은 한 사람의 성격을 이루는 일간의 성정을 알아보면서 한 사람의 성격적인 특징을 어떻게 사주구조에서 이루어 나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甲 乙 木 : 인(仁)

[자애(慈愛)와 成長의 主觀]

- ① 행동 지표 : 성장을 추구하며 기초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 ② 사회적 지식체계 : 교육, 문화, 언론, 신문, 방송, 문자, 표시, 지시, 방향
- ③ 인간관계 : 리더십과 진보적 기질, 측은지심과 자애성을 갖춘 이기주의자.
- ④ 木 生 火 : 자비와 희생적 심성이다.
- ⑤ 甲木(陽) : 주관적(主觀的), 대범, 외강내유, 담력 강함. 선도적 역할
- ⑥ 乙木(陰) : 감성적(感性的), 소심, 외유내강, 신경 예민. 타협적

• 甲木의 성정

설득력과 논리성이 강하고 예의가 바르며 사교적이다. 리더쉽이 강하고 진취적이며 인자하고 자상하다. 이타정신이 강하다 반면에 자기주장을 강하게 관철시키려고 하며 편협하고 비타협적이다. 호기심이 많고 지나친 관여를 한다. 이지적이며 독선적이고 스스로 이해가 안되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

• 乙木의 성정

겸손하고 예의를 잘 지키며 부드럽고 섬세하다. 주변과 잘 융화하며 분위기 파악을 잘 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다. 반면에 허풍이 많고 속을 알기가 어려우며 정치적으로 행동한다.

신경이 예민하여 주위의 반응에 민감하며 질투심이 강하며 참을성이 없고 즉흥적이다.

* 丙 丁 火 : 예(禮)

[禮義와 感情의 主觀]

- ① 행동지표 : 감정의 표현이며 지적자산(知的資產)을 바탕으로 한다.
- ② 사회적 지식체계 : 어문학, 이공계, 언론, 발명, 정보, 통신, 광고, 교육
- ③ 인간관계 : 예의를 통한 명분과 체면중시, 이기적인 내성과 감정적 소유자
- ④ 火 生 土 : 호기심과 탐구심 자비의 심성이다.
- ⑤ 丙火(陽) : 감정적(感情的), 직언, 명랑, 달변, 변화, 명분을 중시한다.
- ⑥ 丁火(陰) : 이기적(利己的), 온화, 소심, 변화에 냉소적인 면이 있다.

• 丙火의 성정

감동적이며 예의가 바르고 감성적이며 명랑하다. 추진력이 강하며 활발하다. 친화적이며 인간적인 성찰이 깊다. 그리고 목적과 목표의식이 강하다. 반면에 자기주장이 강하고 명분을 앞세우며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행동한다. 조금하고 흥분을 잘하며 소유욕과 집착이 강하다. 그리고 사치스러우며 분위기에 휩쓸린다.

• 丁火의 성정

부드럽고 세심하며 침착하고 예의 바르다. 따뜻하고 온화한 심성을 지녔으며 주변환경과 조화를 잘 이루고 남을 잘 배려한다. 반면에 주관이 약해서 남의 말에 잘 흔들리고 의지력이 약하여 중도포기를 잘 하며 드러나지 않는 이기성이 많다. 그리고 자기의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지 못하고 공상을 잘 한다.

* 戊 己 土 : 신(信)

[信用과 平和의 主觀]

- ① 행동지표 : 신용과 충성, 중용과 타협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 ② 사회적 지식체계 : 사회학, 종교학, 지리학, 박물관, 사적지, 부동산학
- ③ 인간관계 : 신용을 중시하고 충효를 바탕으로 전후를 관망하는 자.
- ④ 土 生 金 : 실리를 추구하는 중용의 심성이다.
- ⑤ 戊土(陽) : 대의적(大義的) 중용, 신용, 대범, 응집력이 강하다.
- ⑥ 己土(陰) : 구상적(具象的) 표현력, 적응능력 좋고 순응적이다.

• 戊土의 성정

신용과 믿음이 있고 인품이 중후하고 듄직하며 포용력과 응집력이 강하다. 목표한 것은 꾸준히 실행하며 충성심과 규칙을 잘 지킨다. 반면에 융통성이 부족하고 고집불통이며 행동이 느리고 기회포착에 약하다. 그리고 자만심이 강하고 과거사에 집착하며 지나치게 고정관념이 강하다

• 己土의 성정

언변이 좋고 표현력이 뛰어나며 주관이 강하다. 자기 관리가 치밀하고 목소리도 크고 좋으며 다정다감하고 친절하다. 반면에 속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감정변화가 심하며 마음의 상처를 잘 받는다. 타인의 충고를 무시하고 이기적이며 욕심이 많다.

*** 庚 辛 金 : 의(義)**

[義理와 改革의 主觀]

- ① 행동지표 : 창조적이며 포용과 변혁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 ② 사회적 지식체계 : 정치학, 금융계, 기계공학, 피부과, 치과, 이비인후과, 흉부외과
- ③ 인간관계 : 의리와 포용을 바탕으로 냉정한 외향성 속에 인정과 자만주의자.
- ④ 金 生 水 : 창조적이며 이지적임과 총명을 상징한다.
- ⑤ 庚金(陽) : 개혁적(改革的) 과감성, 주관성, 결단성과 포용, 실천력이 있다.
- ⑥ 辛金(陰) : 실리적(實利的), 냉소적, 이기적이고 예민하며, 행동성이 강하다.

• 庚金의 성정

결단력과 추진력이 좋고 스스로의 결과에 책임을 진다. 정의감이 강하며 머리가 좋고 자긍심이 높으며 몸이 재빠르고 부지런하다. 반면에 자신의 주장이 너무 강하고 허세가 강하며 잘난척을 잘 한다. 남의 말을 잘 안 듣고 사서 고생하며 독선적이고 비타협적이며 잔인하고 살생과 자해를 한다.

• 辛金의 성정

외모가 깨끗하고 아름다우며 깊이 생각하고 침착하다. 행동이 조심스럽고 실수를 용서하지 않으며 총명하고 냉철한 판단을 한다. 그리고 논리력이 뛰어나고 언변도 좋다. 반면에 성격이 급하고 도전적이며 욕심이 많고 지기를 싫

어하며 자존심이 강하며 양보심이 없다. 주관적이고 냉소적이며 섬세하고 꼼꼼히 따지는 습성이 있다.

*** 壬 癸 水 : 지(智)**

[지혜와 창의성의 主觀]

- ① 행동지표 : 창의성과 기획력, 책임완수의 표상을 바탕으로 한다.
- ② 사회적 지식체계 : 경제, 경영, 법학, 생리, 유통, 호텔학, 냉동, 교육학, 식품공학
- ③ 인간관계 : 진보적인 성향의 감성주의와 친화적인 자기분위가 강한 자.
- ④ 水 生 木 : 창의적인 변화를 상징한다.
- ⑤ 壬水(陽) : 기획적(企劃的), 변화, 실천, 다재다능한 자기 본위적이다.
- ⑥ 癸水(陰) : 합리적(合理的), 집중, 총명하고 변화와 평등을 중시한다.

• 壬水의 성정

총명하고 머리회전이 빠르고 친화적이며 포용력이 있다. 스케일이 크고 대범하며 마음이 넓다. 그리고 기획력이 뛰어나며 실천적이고 부지런하며 활동력이 강하다. 반면에 나서기를 좋아하고 허세를 잘 부리며 참을성이 없고 변덕이 심하다. 모사에 능하고 권모술수를 부리며 너무 앞서고 일을 잘 저지른다. 시작은 있으나 마무리를 잘 못한다.

• 癸水의 성정

적응력이 뛰어나고 합리적이며 친절하다. 지혜롭고 재주가 많으며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섬세하고 치밀하며 외유내강하다. 반면에 신경이 예민하고 주관적이며 감성적이고 차가운 면이 있으며 의지력이 약하고 비관적인 경향이 있

다. 그리고 이중의 마음을 갖고 있으며 인정이 많아 배신을 잘 당한다.²⁴⁾

이렇게 일간은 음양과 오행에 따른 고유한 성격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다. 십성의 성정

십성은 오행이 일간을 중심으로 생하고 극하는 관계에서 나온 것으로 음양 오행에 비해서 보다 복합적인 성격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십성과 더불어 음양오행적인 면과 함께 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십성을 결정하는 이론은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십성이 가진 성격적인 면만을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인성(정인, 편인) - 생리적 욕구

-부모가 지속적으로 관심과 사랑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과 같은 역할로서 수용성을 의미한다. 지식의 수용, 사랑의 수용과 같이 받고자하는 생리적 욕구 이면서 새로운 이익 창출을 위한 사전 작업과도 같은 in put의 작용을 한다.

*관성(편관, 정관) - 안정의 욕구

-여러 위험에서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안정의 욕구로서 그러므로 권력과 질서와 규범을 중시하며 귀를 통한 안정을 지향하는 욕구이다.

*식상(식신, 상관) - 친화의 욕구

-집단에 소속되어 신뢰와 수용을 바탕으로 타인과의 친화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며 호기심이 많아서 인내가 어려우며 자신을 발산시키고자하는 욕구이다.

24) 김배성 (2004), 『사주심리치료학』, 창해

*비겁(비견, 겁재) - 자아의 욕구

-주관적이고 독립적인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볼 수 있으며 자신감을 포함하여 언제나 존중과 인정을 받고 싶은 주체성을 상징하는 욕구이다.

*재성(편재, 정재) - 실현의 욕구

-자신의 잠재 가능성을 최대한 실현시키고자 하는 욕구이며 현실속에서 물질적인 소유를 의미하기도 하고 목적이 있는 실현지향적인 욕구이다.²⁵⁾

위와 같이 사주명리학은 그동안의 선입견과는 달리 한 사람의 운과 길흉화복만을 논했던 학문이 아니고 성격적인 면에 있어서도 훌륭한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학문으로서 다양한 성격이론과의 연구는 의미있는 일이며 여기서는 MBTI 이론중에서도 선호경향과의 관련성을 살펴 그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라. 조후와 성격심리

조후란 사주를 기후학적인 입장에서 파악하고 사주를 이해하는 이론이다. 그러므로 사주를 자연현상과 관련지어 이해함으로서 월지의 계절을 바탕으로 그 특성을 알아보는 것이다. 즉 인묘진, 사오미월생과 목화로 치우친 사주는 난조한 사주구조로 파악하고 신유술, 해자축생과 금수로 치우친 사주는 한습한 사주로 파악하여 성격적인 특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기후학적인 연구와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으며 성격파악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한습한 구조의 명조에서 많이 나타나는 예가 금수한랭(金水寒冷)의 사주이다. 단지 습함만이 아니라 오행이 ‘金水’로만 이루어져 있으니 뽕뽕 얼어 냉기가 감도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런 사주는 일점 태양을 볼 수 없으니 나무

25) 김배성 (2004), 『사주심리치료학』, 창해

가 자랄 수 없다. 즉, 생산은 하되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과 같으므로 배우자나 자식과 인연이 없으며, 고독하고 비애스럽거나 편협한 삶이 될 수 있다. 또는 음천(淫賤)하여 서비스 계통 등에 종사하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이다. 평균적으로 그런 삶의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고 가정을 거느리며 훌륭한 작가나 심리학자 또는 의학, 종교, 철학 등 다방면에서 성공한 예들도 종종 볼 수 있다.

<심리구조>

내면지향적 사고로 사물의 관점, 사고계의 정보수집 방법에 있어서 사물의 이면성과 내면적 접근을 취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 원거리 사고로서 정신적 이상향(理想郷)을 추구하게 된다.

난조한 사주 중에는 대부분 화염토조(火炎土燥)한 명이 많다. 화염토조란 火氣가 태왕하여 땅이 마르고 갈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릇 땅은 습기가 있어야 씨앗이 배양되며 초목(草木)이 뿌리를 내리고 잎을 내고 꽃을 피워 결실을 맺지만, 메마르고 갈라진 땅에서는 아무런 소득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사주는 재물이 모아지지 않고 부모와 배우자 운도 없으니 종교계로 귀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이며, 그와 같은 작용이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다. 즉, 조열한 사주라도 결혼을 하고 내조를 잘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면에 손색이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단편적으로 치부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심리>

심리구조상 정서순환이 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 때문에 호환적(互換的)이거나, 공생(共生) 심리와 공감(共感) 기능이 떨어진다. 정신분열과 조울증적 증후가 잠복하고 있다. 사회성이 낮으며, 집단생활은 어렵다.

이렇게 한난조습과 관련지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성격적인 특징은 위와 같은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의 특징이므로 일반적인 사주인 경우에는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풀이가 필요하다.²⁶⁾

4. MBTI 성격유형검사

앞에서는 사주명리학의 역사와 본 연구와 관련된 이론적인 배경으로 성격이론 그리고 사주명리학에서 성격을 발현시키는 다양한 요건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지금부터는 MBTI에서 말하는 성격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한 사람의 성격을 어떻게 분류하고 유형화 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먼저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는 C.G.Jung의 심리유형론을 근거로 하여 Katharine Cook Briggs와 Isabel Briggs Myers가 보다 쉽고 일상 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한 자기보고식 성격유형지표이다. 융의 심리유형론은 인간행동이 그 다양성으로 인해 종잡을 수 없는 것같이 보여도 사실은 아주 질서정연하고 일관된 경향이 있다는 데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인간행동의 다양성은 개인이 인식(Perception)하고 판단(Judgement)하는 특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한국의 MBTI 역사는 1988-1990년 심혜숙, 김정택에 의해 미국 CPP와 MBTI의 한국판 표준화 법적 계약을 맺고 표준화 작업이 완성되었고 1990년 6월에 한국에 도입되어 MBTI 사용자를 위한 초급 보수 중급 어린이 및 청소년 적용프로그램 일반강사교육과정 개발하였고 지속적인 MBTI 연구 번역 저술 활동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 현재 인사관리, 고객서비스, 진로지도, 상담 및 코칭 자녀 교육, 부모역할 커뮤니케이션, 조직 활성화, 자기관리, 학습지도 등

26) 김배성 (2004), 『사주심리치료학』, 창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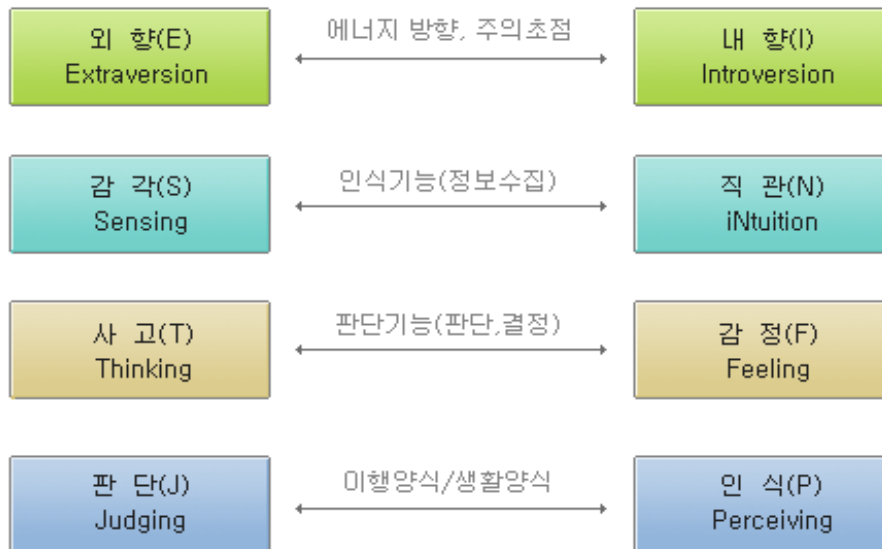
의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MBTI의 바탕이 되는 융의 심리유형론의 요점은 각 개인이 외부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인식기능) 자신이 수집한 정보에 근거해서 행동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데(판단기능) 있어서 각 개인이 선호하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융의 심리유형론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여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MBTI에서는 인식과정을 감각(S:Sensing)과 직관(N:Nilution)으로 구분하여 사물 사람 사건 생각들을 인식하게 될 때 나타나는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며 판단과정은 사고(T:Thinking)와 감정(F:Feeling)으로 구분하여 우리가 인식한 바에 의거해서 결론을 이끌어 내는 방법들 간의 차이점을 알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을 사용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 외향(E:Extraversion)과 내향(I:Introversion) 및 판단(J:Judging)과 인식(P:Perceiving)으로 구분하여 심리적으로 흐르는 에너지의 방향 및 생활양식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가. *MBTI* 4가지 선호경향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는 성격 유형에 대한 검사로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선호경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경향은 융의 이론에 따르면 교육이나 환경적인 요인 이전에 한 사람에게 고유하게 있는 선천적인 기질적 성격을 의미한다. 각 개인은 다음의 4가지 중에 각각 한 가지의 경향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경향들이 모여서 한 사람의 고유한 성격유형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림 II-1> MBTI 4가지 선호경향²⁷⁾



나. MBTI 선호경향에 대한 이해²⁸⁾

먼저 외향형과 내향형은 에너지의 방향과 주의 초점의 방향을 나타내는데 그 방향이 바깥을 향하면 외향이 되고 내면을 향하면 내향이 된다. 외향들은 외부로 향하여 활동할 때 에너지를 얻고 내향형은 개인적으로 반추할 때 에너지를 얻는다. 그 반대의 상황에서는 에너지를 소모된다.

27) (주)한국MBTI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mbti.co.kr/>

28) 한국교총 원격연수원 (2006), 『심리검사의 이해와 학생상담』

< 표 II-5 > 외향성/내향성

외향성	내향성
자기 외부에 주의 집중	자기 내부에 주의집중
외부활동고 적극성	내부활동과 집중력
정열적, 활동적	조용하고 신중
말로 표현	글로 표현
경험한 다음에 이해	이해한 다음에 경험
쉽게 알려짐	서서히 알려짐

감각형과 직관형은 사물을 인식하는 두 가지의 방식으로서 사람이나 사물을 인식할 때 감각을 이용하면 보통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배운다. 반면 직관을 사용하면 사실 이면의 가능성을 보고 예감을 하게 된다.

< 표 II-6 감각형/직관형 >

감각형	직관형
지금, 현재에 초점	미래 가능성에 초점
실제의 경험	아이디어
정확, 사실적 일처리	신속비약적인 일처리
사실적 사건묘사	비유적, 암시적 묘사
나무를 보려는 경향	숲을 보려는 경향
가꾸며 추수함	씨뿌림

사고형과 감각형은 판단하고 추리하는 두가지 방식으로 사고를 통해 판단하면 비개인적인 결론을 찾기 위해서 인과적인 추론을 하게 되지만 감정을 통해 추리하면 자신의 결정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된다.

< 표 II-7 > 사고형/감정형

사고형	감정형
진실, 사실에 주관심	사람, 관계에 주관심
원리와 원칙	의미와 영향
논리적, 분석적	상황적, 포괄적
맞다, 틀리다	좋다, 나쁘다
규범, 기준 중시	나에게 주는 의미 중시
지적 논평	우호적 협조

판단형과 인식형은 심리적 기능이 구체적인 생활장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생활양식에 관한 것이다. 판단선호형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생활하는 경우이며 인식선호형은 방향의 변화가 가능하고 자율적이며 융통성있게 생활하는 경우이다.

< 표 II-8 > 판단형/인식형

판단형	인식형
정리정돈과 계획	상황에 맞추는 개방성
의지적 추진	이해로 수용
신속한 결론	유유자적한 과정
x통제와 조정	융통과 적응
분명한 목적의식과 방향감각	목적과 방향은 변화할 수 있다는 개방성
뚜렷한 기준과 자기의사	재량에 따라 처리될 수 있는 포용성

이러한 MBTI의 선호 경향들이 각각 한 가지씩 개인별로 선택이 되면 그것들의 조합이 하나의 성격유형으로 패턴화되어 16가지의 한 사람의 성격적인 특성을 이룬다는 것이 바로 이 이론이다.

< 표 II-9 > MBTI 16가지 성격유형

1. ISTJ	2. ISFJ	3. INFJ	4. INTJ
5. ISTP	6. ISFP	7. INFP	8. INTP
9. ESTP	10. ESFP	11. ENFP	12. ENTP
13. ESTJ	14. ESFJ	15. ENFJ	16. ENTJ

즉, 외향(E)-내향(I)은 ‘에너지의 방향’에 대한 선호경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주요활동은 주의 초점이다. 감각(S)-직관(N)은 ‘무엇을 인식하는가?’에 대한 선호경향으로서 주요활동은 인식기능이다. 사고(T)-감정(F)은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대한 선호경향으로서 판단기능이 주요활동이다. 판단(J)-인식(P)은 ‘채택하는 생활양식은 무엇인가?’에 대한 선호경향으로서 주요활동은 생활양식이다. 이러한 4가지 선호지표들이 복합적으로 한 사람의 성격을 형성하며 위의 표와 같은 16가지의 성격유형으로 분류된다고 보는 것이 MBTI 성격유형 이론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16가지 모두의 성격 유형이 아닌 4가지 선호경향에 맞추어서 사주명리학의 이론과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므로 16가지 성격 유형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C. 사주명리학과 MBTI의 성격이론과의 관계

지금까지 사주명리학에서 살펴볼 수 있는 성격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고 MBTI에서 성격을 분류하는 기준인 4가지 지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한 사람의 성격이란 간단히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서로 상이한 이론을 가진 성격에 대한 관점을 종합하여 관련성을 추출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두드러지는 공통적인 내용과 뚜렷하게 분류되는 내용들은 그 관계성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두 가지 이론에서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으로 사주명리학의 오행과 십성, MBTI이론에서는 4가지 지표를 가지고 그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고찰 이외의 확실한 결론이 설문지의 통계분석으로 나올 수도 있으나 이론적인 내용들을 살펴 그 관련성을 먼저 알아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1. 오행과 MBTI 4가지 지표와의 관계

외향성(Extroversion) - 오행과의 관련성 : 목, 화

내향성(Introversion) - 오행과의 관련성 : 금, 수

-외향(E)-내향(I)은 '에너지의 방향'에 대한 선호경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주요활동은 주의 초점이다. 그러므로 음양 중에서 양적인 기질이 강한 목, 화가 외향적이며 음적인 기질이 강한 금, 수가 내향적이라고 볼 수 있다.

외향적인 사주의 예

丁 丙 甲 乙

酉 戌 申 卯

목화의 기운이 강한 사주로서 매우 명랑하고 항상 목소리 톤이 높은 사람의 사주이다. 자신의 마음을 항상 보여주고 감정의 발산을 잘 한다.

내향적인 사주의 예

己 庚 戊 壬

卯 子 申 子

사주가 금수로 치우쳐서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을 내적으로 담아두는 사람이다. 인상도 차갑고 언제나 조용한 말투이며 어려운 일도 거의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다.

감각형(*Sensing*) - 오행과의 관련성 : 화, 금

직관형(*Intuition*) - 오행과의 관련성 : 수, 목

-감각(S)-직관(N)은 ‘무엇을 인식하는가?’에 대한 선호경향으로서 주요활동은 인식기능이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강하고 실제적이며 드러나는 기질과 관련지어 화, 금이 감각적이며 아이디어에 뛰어나고 미래적인 사고에 치중하는 수, 목이 직관적이라고 볼 수 있다.

감각형인 사주의 예

庚 丙 辛 甲

壬 子 未 午

현실적이고 외적인 면에 치중을 많이 하는 성격이며 언제나 자신이 멋진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하므로 특기를 가지려고 노력하며 액세서리에 관심이 많다.

직관형인 사주의 예

乙 乙 甲 壬

酉 亥 辰 申

환경을 구성하고 장식하는 센스가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가진 여학생이며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이 많고 계획성있는 생활로 모범을 보인다.

사고형(Thinking) - 오행과의 관련성 : 금, 목

감정형(Feeling) - 오행과의 관련성 : 토, 수, 화

-사고(T)-감정(F)은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대한 선호경향으로서 판단기능이 주요활동이다. 원리와 원칙을 중시하고 논리적 분석적인 기질과 관련지어 금, 목이 사고형에 가까우며 사람과의 관계에 관심이 많으나 상황적, 포괄적인 감정형은 수, 화, 토와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사고형인 사주의 예

癸 庚 丙 甲

未 辰 寅 寅

결단력있고 생활에 정도가 있으며 깊이있는 사고를 통하여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다양한 능력을 갖추려고 노력한다. 나이에 비하여 젊잖아 보이는 특징이 있다.

감정형인 사주의 예

癸 丙 乙 丙

巳 午 未 子

인적 교류가 활발하고 인정받으며 상황판단에 매우 빠른 장점을 가졌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적인 면을 숨기지 못하고 할 말을 다 해야 속이 풀리는 성격이다.

판단형(Judging) - 오행과의 관련성 : 금, 목

인식형(Perceiving) - 오행과의 관련성 : 수, 화

-판단(J)-인식(P)은 '채택하는 생활양식은 무엇인가?'에 대한 선호경향으로서 주요활동은 생활양식이다. 정리정돈과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는 판단형의 기질은 금, 목과 관련성이 깊으며 상황에 맞추는 개방성과 변화의 기질이 강한 인식형은 수, 화의 기질과 연관성이 깊다고 볼 수 있다.

판단형인 사주의 예

辛 庚 壬 戊

巳 辰 戌 申

자신의 살아가는 모습이 항상 자신이 생각한 길을 가야 되는 유형으로서 분명한 목적의식을 항상 가진다. 젊어서는 전폭적으로 아이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였으나 현재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인식형인 사주의 예

壬 乙 乙 丁

午 亥 巳 巳

누구를 만나든 잘 적응하며 자신의 위치를 잘 선정하는 기질이 강하다. 자신의 생각이 뚜렷하기는 하지만 외부와의 교류에 있어서 유동적인 자세를 취하므로 언제든지 변화에 잘 적응하고 앞서가는 삶의 모습을 지닌다.

2. 십성과 MBTI 4가지 지표와의 관계

외향성(*Extroversion*) - 십성과의 관련성 : 식상, 재성, 비겁

내향성(*Introversion*) - 십성과의 관련성 : 관성, 인성, 비겁

-외향(E)-내향(I)은 '에너지의 방향'에 대한 선호경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주요활동은 주의 초점이다. 그러므로 모두 자아의 욕구와 관련지어 비겁을 중심으로 외향성은 out-put을 대표하는 식상과 재성이 관련성이 깊으며, 내향성은 외향성과 마찬가지로 비겁을 중심으로 in-put을 대표하는 관성과 인성이 관련성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외향성인 사주의 예

癸 甲 丙 己

酉 寅 寅 酉

천간이 식재로 빠지고 목화의 기운이 강한 사주라 매우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며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은 사람이다. 항상 웃고 다니며 지인들과 안부 전화도 자주 자신이 먼저 하는 사람이다.

내향성인 사주의 예

丙 庚 庚 丙

戊 申 子 申

시주가 관인상생으로 일주와 이어지는 구조로서 항상 행동이 조심스럽고 차분한 사람이다. 그러나 경금의 성격상 드물게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피력할 때도 있으나 대부분 내향적인 성격을 보인다.

감각형(*Sensing*) - 십성과의 관련성 : 재성, 인성

직관형(*Intuition*) - 십성과의 관련성 : 식상, 관성

-감각(S)-직관(N)은 ‘무엇을 인식하는가?’에 대한 선호경향으로서 주요활동은 인식기능이다. 감각형은 매우 현실적이며 정확하고 철저한 일처리를 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재성, 인성과 관련성이 깊으며, 직관형은 아이디어가 좋고 신속 비약적인 일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식상과 관성의 공조를 통한 성격발현과 관련성이 깊다고 볼 수 있다.

감각형인 사주의 예

庚 辛 甲 甲

寅 丑 戌 寅

회사원으로서 일처리가 정확하고 꼼꼼하며 자신이 현재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젊은 나이에 매우 경제적인 면에 매우 관심이 많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연주의 재성과 지지의 인성이 강한 사주 구조이다.

직관형인 사주의 예

丙 癸 甲 戊

辰 亥 子 戌

연주의 관성을 월간의 갑목 상관이 제어하고 있는 사주이다. 비겁이 많아서 성격이 급한 면도 있지만 언제나 생각의 발상이 남다르며 신속하고 남보다 앞서서 일을 추진하는 모습을 가진 성격이다.

사고형(*Thinking*) - 십성과의 관련성 : 재성, 관성

감정형(*Feeling*) - 십성과의 관련성 : 식상, 인성

-사고(T)-감정(F)은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대한 선호경향으로서 판단기능이 주요활동이다.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며 실질적인 사실에 주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는 사고형은 재성, 관성과 관련성이 깊다고 볼 수 있으며, 사람과의 관계에 주관심이 있고 의미와 영향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 감정형은 식상, 인성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

사고형인 사주의 예

壬 戊 丁 甲

戊 辰 丑 寅

일간도 강하지만 연주의 관성이 성격발현에 강하게 작용하는 사주이다. 생각하는 폭이 남보다 넓으며 이로 인해서 다양한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가치관이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다.

감정형인 사주의 예

甲 癸 丙 庚

寅 卯 戊 寅

계수 일간이 식상태과에 월간으로 재성이 있는 사주이다. 언제나 낭만적인 말솜씨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성을 가진 성격이지만 자신의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절력이 약하고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다.

판단형(*Judging*) - 십성과의 관련성 : 관성, 인성

인식형(*Perceiving*) - 십성과의 관련성 : 식상, 재성

-판단(J)-인식(P)은 ‘채택하는 생활양식은 무엇인가?’에 대한 선호경향으로서 주요활동은 생활양식이다. 그러므로 통제와 조정을 하려하고 정리정돈과 계획을 세우려는 경향이 강한 판단형은 관성, 인성과 관련성이 깊고, 상황에 맞추는 개방성과 과정을 즐기려는 경향이 강한 인식형은 식상, 재성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

판단형인 사주의 예

戊 辛 丙 戊

戊 酉 辰 申

월간의 병화 관성 하나에 인성이 많은 사주이다. 언제나 진지하고 차분하며 상사와 부하직원 사이에서 원만한 역할을 잘 해내며 일에 있어서나 개인 생활에 있어서나 계획성있고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성격이다.

인식형인 사주의 예

戊 戊 辛 癸

午 辰 酉 丑

토일간이 신강한 사주 구조이지만 식재로 빠져나가는 구조를 하고 있다. 언제나 사물의 이면을 보는 발상이 뛰어나고 주어진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삶을 누리려는 모습이 있고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멋스러운 사람이다.

Ⅲ. 연구의 방법 및 절차

A. 연구의 대상

연구 대상은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K대 대학원생, O초등학교 교사와 서울, 인천, 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설문에 답한 응답자의 설문지 유효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표 Ⅲ-1> 설문지 유효자료 현황

N=250명

구분	빈도(명)	퍼센트(%)
남	96명	38.40%
여	154명	61.60%

본 연구는 설문지에 답한 250명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하였으며 남자는 96명 38.40%, 여자는 154명으로 61.60%를 차지하고 있다.

B. 측정방법 및 도구

본 연구는 ‘사주와 MBTI 성격이론과의 상관관계 연구’이다. 그러므로 응답자의 생년월일시로 사주를 구성하고 사주에서 성격을 나타내는 일간과 월지 등을 MBTI의 4가지 선호경향과 관련지어 일간별, 격국별, 오행별 통계를 내어보았다. 설문지 내용은 성격에 대한 판별을 하고자 하는 문항 15개로 이루어진 질문지를 활용하여 자기 보고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에 사용된 문항들은 일반적인 목화토금수의 오행별 성정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과 적성에 맞는 학과 계열에 대한 질문도 포함되었으며, 한습한 사주와 난조한 사주가 갖는 간단한 특징을 나열하여 자기 보고에 의한 방법으로 성격적인 특징을 질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내용 외에 칼.융의 심리학적 이론에 바탕을 둔 MBTI에서 말하는 성격 유형에 대한 내용을 문항으로 작성하여 과연 사주적인 여러 기질들이 MBTI에서 말하는 성격적인 특징과 과연 어떠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가를 교차분석하여 알아보았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MBTI 검사의 4가지 지표와 사주명리학에서 성격을 발현시키는 오행별, 십성별 특징과의 관련성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기준으로 하여 통계 내용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앞에서 이론적 연구를 통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이다. 여기서 오행과의 관련성은 일간의 오행, 월지의 오행 모두를 포함한 것이다. 십성과의 관련성은 MBTI 4가지 지표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통하여 드러난 경향들과 비교 분석하여 연관성을 살펴본 것이다.

외향성(Extroversion) - 오행과의 관련성 : 목, 화

- 십성과의 관련성 : 식상, 재성, 비겁

내향성(Introversion) - 오행과의 관련성 : 금, 수

- 십성과의 관련성 : 관성, 인성, 비겁

감각형(Sensing) - 오행과의 관련성 : 화, 금

- 십성과의 관련성 : 재성, 인성

직관형(Intuition) - 오행과의 관련성 : 수, 목

- 십성과의 관련성 : 식상, 관성

사고형(Thinking) - 오행과의 관련성 : 금, 목

- 십성과의 관련성 : 재성, 관성

감정형(Feeling) - 오행과의 관련성 : 수, 화

- 십성과의 관련성 : 식상, 인성

판단형(Judging) - 오행과의 관련성 : 금, 목

- 십성과의 관련성 : 관성, 인성

인식형(Perceiving) - 오행과의 관련성 : 수, 화

- 십성과의 관련성 : 식상, 재성

위와 같이 이론적 내용을 통한 고찰을 바탕으로 성격적인 관련성을 살펴보고, 자기보고에 의한 질문지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통계내고 분석하여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MBTI 16가지 성격유형과의 관련성은 오행과 십성의 종합적인 관계에 의하여 발현되는 것이므로 성격을 분류하는 4가지 지표만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사주명리학 이론도 격국과 십성, 오행, 용신 등을 모두 살펴 종합적인 결론을 내야 되므로 오행과 십성으로 한정지어 MBTI 4가지 지표와의 관련성만을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의 분석 및 해석

A. 표본인구의 통계적 특성

본 연구는 250명에 대하여 설문지를 활용하여 자기보고에 의한 방법으로 조사 분석하였으며 이 표본인구 250명에 대한 통계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응답자의 사주에 관한 일반적 통계

먼저 응답자 사주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통계를 내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1> 응답자 사주의 일간 분석

N=250명

구별	빈도(명)	백분율(%)
갑목	23명	9.20%
을목	24명	9.60%
병화	36명	14.40%
정화	24명	9.60%
무토	12명	4.80%
기토	26명	10.40%
경금	30명	12.00%
신금	27명	10.80%
임수	23명	9.60%
계수	25명	10.00%

<표 IV-2> 일간오행의 빈도분석

N=250명

구별	빈도(명)	백분율(%)
목	47명	18.80%
화	60명	24.00%
토	38명	15.20%
금	57명	22.80%
수	48명	19.20%

응답자의 일간오행별 분포도는, 목(木)일간은 47명으로 18.80%를, 화(火)일간은 60명으로 24.00%를, 토(土)일간은 38명으로 15.20%를, 금(金)일간은 57명으로 22.80%를, 수(水)일간은 48명으로 19.20%를 차지하였다. 다섯 가지 일간오행은 토오행이 다소 적고 화오행과 금일간이 다소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IV-3> 격국의 빈도분석

N=250명

구별	빈도(명)	백분율(%)
비겁격	40명	16.00%
식상격	52명	20.80%
재 격	59명	23.60%
관 격	51명	20.40%
인수격	48명	19.20%

응답자의 사주 격국별 분포도는, 전체응답자중 비겁격은 40명으로 16.00%를, 식상격은 52명으로 20.80%를, 재격은 59명으로 23.60%를, 관격은 51명으로 20.40%를, 인수격은 48명으로 19.20%를 차지하였다.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비겁격이 다소 적고 재격이 다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IV-4> 태어난 계절의 빈도분석

N=250명

구별	빈도(명)	백분율(%)	4계절	빈도(명)	백분율(%)
인월	23명	9.20%	봄	55명	22.00%
묘월	20명	8.00%			
진월	12명	4.80%			
사월	21명	8.40%	여름	63명	25.20%
오월	20명	8.00%			
미월	22명	8.80%			
신월	24명	9.60%	가을	74명	29.60%
유월	25명	10.00%			
술월	25명	10.00%			
해월	21명	8.40%	겨울	58명	23.20%
자월	15명	6.00%			
축월	22명	8.80%			

응답자의 태어난 계절별 분포도는 봄생이 55명으로 22.00%, 여름생은 63명으로 25.20%, 가을생은 74명으로 29.60%, 겨울생은 58명으로 23.20%를 차지했으며 가을생이 다소 많은 분포를 보였다.

2. 응답자 설문에 관한 통계

<표 IV-5> 4가지 선호도에 관한 빈도분석-외향/내향 N=250명

구별	빈도(명)	백분율(%)
외향형	99명	39.60%
내향형	57명	22.80%
균형	93명	37.20%

4가지 선호도 중에서 외향형과 내향형에 대한 빈도 분석은 외향형이 99명에 39.60%, 내향형이 57명으로 22.80%로 외향형이 다소 많은 분포를 보였다.

<표 IV-6> 4가지 선호도에 관한 빈도분석-감각/직관 N=250명

구별	빈도(명)	백분율(%)
감각형	112명	44.80%
직관형	41명	16.40%
균형	97명	38.80%

4가지 선호도 중에서 감각형과 직관형에 대한 빈도 분석은 감각형이 112명으로 44.80%, 직관형이 41명으로 16.40%로 감각형이 월등하게 많은 분포를 보였다.

<표 IV-7> 4가지 선호도에 관한 빈도분석-사고/감정 N=250명

구별	빈도(명)	백분율(%)
사고형	57명	22.80%
감정형	103명	41.20%
균형	90명	36.00%

4가지 선호도 중에서 사고형과 감정형에 대한 빈도 분석은 사고형이 57명으로 22.80%, 감정형은 103명으로 41.20%를 보였다.

<표 IV-8 > 4가지 선호도에 관한 빈도분석-판단/인식 N=250명

구별	빈도(명)	백분율(%)
판단형	58명	23.20%
인식형	62명	24.80%
균형	130명	52.00%

4가지 선호도 중에서 판단형과 인식형에 대한 빈도 분석은 판단형이 58명으로 23.20%, 인식형은 62명으로 24.80% 였다.

<표 IV-9 > 시간관리에 관한 빈도분석 N=250명

구별	빈도(명)	백분율(%)
잘함	168명	67.20%
못함	82명	32.80%

시간 관리에 대한 빈도분석은 시간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68명으로 67.20%,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82명으로 32.80%였다.

<표 IV-10 > 타이밍에 관한 빈도분석 N=250명

구별	빈도(명)	백분율(%)
강함	135명	54.00%
약함	115명	46.00%

타이밍이란 기회 포착이라든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제 때에 성사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타이밍에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35명으로 54.00%,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15명으로 46.00%를 차지하고 있다.

<표 IV-11 > 오 행성 향에 관한 빈도분석

N=250명

구별	빈도(명)	백분율(%)
목 성향	31명	12.40%
화 성향	52명	20.80%
토 성향	88명	35.20%
금 성향	48명	19.20%
수 성향	31명	12.40%

오 행에 대한 성향을 간단한 문장으로 조사해 본 결과는 목성향이 31명으로 12.40%, 화성향은 52명으로 20.80%, 토성향은 88명으로 35.20%, 금성향은 48명으로 19.20%, 수성향은 31명으로 12.40%였다. 토 성향이 가장 월등하게 많은데 일간별 통계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일간별 통계에서는 반대로 토일간이 가장 적은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다.

<표 IV-12 > 월지별 빈도분석

N=250명

구별	빈도(명)	백분율(%)
인월, 묘월	43명	17.20%
사월, 오월	41명	16.40%
축월,진월,미월,술월	81명	32.40%
신월, 유월	49명	19.60%
해월, 자월	36명	14.40%

월지의 오 행별로 통계를 낸 것은 일간의 오 행별 통계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던 것과는 달리 위와 같은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이는 월지는 진술축미월이었고 가장 적은 빈도수를 보이는 월지는 해자월이었다. 이것은 <표 IV-11 >처럼 토와 관련된 성향과 월지가 가장 많았고, 수와 관련된 성향과 월지가 가장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주의 주인공이 느끼는

자신의 성격적인 특성은 일간의 성격도 분명히 나타나지만 월지와 연관되어 더욱 강하게 느낀다는 것과 연관이 깊다고 할 수 있다.

<표 IV-13 > 학과 계열에 관한 빈도분석

N=250명

구별	빈도(명)	백분율(%)
인문 계열	103명	41.20%
이공 계열	50명	20.00%
예능 계열	97명	38.80%

자신과 맞는 학과 계열은 인문계열이 103명으로 41.20%, 이공계열이 50명으로 20.00%, 예능계열이 97명으로 38.80%였다.

<표 IV-14 > 음양에 관한 빈도분석

N=250명

구별	빈도(명)	백분율(%)
양 편중	94명	37.60%
음 편중	92명	36.80%
균형을 이룬 사주	64명	25.60%

위의 분석은 사주팔자의 8글자를 음양으로 나누어 4개 이상을 기준으로 나누어 보았으며 4개씩 똑같이 갖추고 있으면 균형을 이루었다고 보고 분석해 보았다. 균형을 이룬 사주는 64명에 25.60%였으며 음과 양으로 약간씩은 편중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표 IV-15> 한난조습에 관한 빈도분석

N=250명

구별	빈도(명)	백분율(%)
한습 보고	129명	48.40%
난조 보고	121명	48.4%

위의 분석표는 한습한 사주의 특징과 난조한 사주의 특징 중에서 자신과 더욱 가깝게 느껴지는 것을 선택하게 한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이다. 목과 화가 주관하는 난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계절에 태어난 사람들이 116명이고 금과 수가 주관하는 한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계절에 태어난 사람들이 122명임을 볼 때에 이러한 결과와 연관이 깊다고 할 수 있다.

B. 연구의 결과

응답자의 출생연월일시의 자료로 사주를 구성, 교차 분석하여 통계를 내어 보면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가 나왔다.

<표 IV-16> 일간오행과 4가지 선호경향과의 관계

N=250명

구별	외향/내향			감각/직관			사고/감정			판단/인식		
	외향형	내향형	균형	감각형	직관형	균형	사고형	감정형	균형	판단형	인식형	균형
목	24	8	16	18	9	21	16	18	14	10	15	23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9.60	3.20	6.40	7.20	3.60	8.40	6.40	7.20	5.60	4.00	6.00	9.20
화	%	%	%	%	%	%	%	%	%	%	%	%
	22	15	23	29	10	24	11	23	19	13	13	34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토	8.80	6.00	9.20	11.60	4.00	9.60	4.40	9.20	7.60	5.20	5.20	13.60
	%	%	%	%	%	%	%	%	%	%	%	%
	17	9	12	16	8	14	9	18	11	11	9	18
금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6.80	3.60	4.80	6.40	3.20	5.60	3.60	7.20	4.40	4.40	3.60	7.20
	%	%	%	%	%	%	%	%	%	%	%	%
수	18	15	14	33	5	19	14	18	19	14	14	29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7.20	6.00	5.60	13.20	2.00	7.60	5.60	7.20	7.60	5.60	5.60	11.60
수	%	%	%	%	%	%	%	%	%	%	%	%
	19	10	19	16	9	23	8	19	21	10	11	27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수	7.60	4.00	7.60	6.40	3.60	9.20	3.20	7.60	8.40	4.00	4.40	10.80
	%	%	%	%	%	%	%	%	%	%	%	%

주목할만한 통계만을 살펴보자면 목일간이 24명에 9.60%로 외향형이 많았고 화, 금일간은 각각 29명에 11.60%, 33명에 13.20%로 감각형이 많았으며 토, 수일간은 18명에 7.20%, 19명에 7.60%로 감정형들이 많았다.

<표 IV-17 > 일간오행별 성향 분석

N=250명

구분	시간관리		한난조습		오행 성향					학과계열		
	잘함	못함	한습	난조	목	화	토	금	수	인문	이공	예능
목	35 명	13 명	21 명	27 명	7 명	9 명	20 명	9 명	3 명	19 명	7 명	22 명
	14.00 %	5.20 %	8.40 %	10.80 %	2.80 %	3.60 %	8.00 %	3.60 %	1.20 %	7.60 %	2.80 %	8.80 %
화	23 명	27 명	35 명	25 명	7 명	17 명	19 명	12 명	5 명	29 명	13 명	18 명
	9.20 %	10.80 %	14.00 %	10.00 %	2.80 %	6.80 %	7.60 %	4.80 %	2.00 %	11.60 %	5.20 %	7.20 %
토	23 명	15 명	21 명	17 명	7 명	6 명	17 명	4 명	4 명	18 명	7 명	14 명
	9.20 %	6.00 %	8.40 %	6.80 %	2.80 %	2.40 %	6.80 %	1.60 %	1.60 %	7.20 %	2.80 %	5.60 %
금	43 명	14 명	30 명	27 명	3 명	8 명	32 명	16 명	8 명	19 명	14 명	24 명
	17.20 %	5.60 %	12.00 %	10.80 %	1.20 %	3.20 %	12.80 %	6.40 %	3.20 %	7.60 %	5.60 %	9.60 %
수	35 명	13 명	22 명	26 명	7 명	12 명	11 명	7 명	11 명	18 명	10 명	20 명
	14.00 %	5.20 %	8.80 %	10.40 %	2.80 %	4.80 %	4.40 %	2.80 %	4.40 %	7.20 %	4.00 %	8.00 %

시간 관리는 특히 금일간이 각각 43명에 17.20% 잘 하고 있다는 자기보고를 두드러지게 하였다.

<표 IV-18> 격국과 4가지 선호경향과의 관계

N=250명

구별	외향/내향			감각/직관			사고/감정			판단/인식		
	외향형	내향형	균형	감각형	직관형	균형	사고형	감각형	균형	판단형	인식형	균형
비 검 격	19 명	9 명	12 명	23 명	5 명	12 명	9 명	12 명	19 명	13 명	10 명	17 명
	7.60 %	3.60 %	4.80 %	9.20 %	2.00 %	4.80 %	3.60 %	4.80 %	7.60 %	5.20 %	4.00 %	6.80 %
식 상 격	17 명	12 명	23 명	20 명	11 명	21 명	13 명	23 명	16 명	11 명	11 명	30 명
	6.80 %	4.80 %	9.20 %	8.00 %	4.40 %	8.40 %	5.20 %	9.20 %	6.40 %	4.40 %	4.40 %	12.00 %
재 격	19 명	15 명	25 명	27 명	12 명	20 명	16 명	25 명	20 명	18 명	15 명	26 명
	7.60 %	6.00 %	10.00 %	10.80 %	4.80 %	8.00 %	8.40 %	10.00 %	8.00 %	7.20 %	6.00 %	10.40 %
관 격	23 명	14 명	14 명	22 명	7 명	22 명	12 명	19 명	20 명	11 명	11 명	29 명
	9.20 %	5.60 %	5.60 %	8.80 %	2.80 %	8.80 %	4.80 %	7.60 %	8.00 %	4.40 %	4.40 %	11.60 %
인 수 격	22 명	7 명	20 명	20 명	6 명	22 명	8 명	24 명	17 명	5 명	15 명	29 명
	8.80 %	2.80 %	8.00 %	8.00 %	3.20 %	8.80 %	3.20 %	9.60 %	6.80 %	2.00 %	6.00 %	11.60 %

격국과 연관지어 살펴보면 비검격이 19명 7.60%, 인수격이 22명 8.80%로 외향형이 많았고, 비검격이 23명 9.20%, 재격이 27명 10.80%으로 감각형이 많았다. 그리고 인수격이 24명 9.60%로 감정형이 많이 나왔다.

<표 IV-19 > 격국별 성향 분석

N=250

구분	시간관리		한난조습		오행 성향					학과계열		
	잘함	못함	한습	난조	목	화	토	금	수	인문	이공	예능
비겁 격	30 명	10 명	21 명	19 명	7 명	7 명	13 명	10 명	3 명	21 명	9 명	10 명
	12.00 %	4.00 %	8.40 %	7.60 %	2.80 %	2.80 %	5.20 %	4.00 %	1.20 %	8.40 %	3.60 %	4.00 %
식상 격	32 명	20 명	27 명	15 명	5 명	13 명	12 명	10 명	5 명	21 명	8 명	23 명
	12.80 %	8.00 %	10.80 %	6.00 %	2.00 %	5.20 %	4.80 %	4.00 %	2.00 %	8.40 %	3.20 %	9.20 %
재격	39 명	20 명	32 명	26 명	9 명	13 명	15 명	8 명	14 명	26 명	13 명	20 명
	15.60 %	8.00 %	12.80 %	10.40 %	3.60 %	5.20 %	6.00 %	3.20 %	5.60 %	10.40 %	5.20 %	8.00 %
관격	36 명	15 명	32 명	19 명	8 명	10 명	23 명	6 명	4 명	17 명	9 명	27 명
	14.40 %	6.00 %	12.80 %	7.60 %	3.20 %	4.00 %	9.20 %	2.40 %	1.60 %	6.80 %	3.60 %	10.80 %
인수 격	32 명	17 명	17 명	32 명	2 명	9 명	19 명	12 명	5 명	18 명	11 명	15 명
	12.80 %	6.80 %	6.80 %	12.80 %	0.80 %	3.60 %	7.60 %	4.80 %	2.00 %	7.20 %	4.40 %	6.00 %

격국별로 분석한 위의 자료는 참고로 조사 분석한 내용으로서 특별한 특성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시간관리는 거의 잘함으로 답변하였으며 학과 계열은 거의 인문계로 그리고 오행성향은 거의 토 오행으로 답변하였다.

<표 IV-20> 태어난 계절과 4가지 선호경향과의 관계

N=250명

구별	외향/내향			감각/직관			사고/감정			판단/인식		
	외향형	내향형	균형	감각형	직관형	균형	사고형	감각형	균형	판단형	인식형	균형
겨울 생	20 명	17 명	22 명	22 명	12 명	25 명	15 명	22 명	22 명	11 명	20 명	26 명
	8.00 %	6.80 %	8.80 %	8.80 %	4.80 %	10.00 %	6.00 %	8.80 %	8.80 %	4.40 %	8.00 %	10.40 %
봄 생	<u>22</u> 명	9 명	24 명	23 명	12 명	20 명	13 명	22 명	20 명	13 명	17 명	25 명
	<u>8.80</u> %	3.60 %	9.60 %	9.20 %	4.80 %	8.00 %	5.20 %	8.80 %	8.80 %	5.20 %	6.80 %	10.00 %
여름 생	27 명	16 명	20 명	<u>32</u> 명	8 명	23 명	12 명	28 명	23 명	14 명	12 명	37 명
	10.80 %	6.40 %	8.00 %	<u>12.80</u> %	3.20 %	9.20 %	4.80 %	11.20 %	9.20 %	5.60 %	4.80 %	14.80 %
가을 생	30 명	15 명	29 명	<u>35</u> 명	9 명	30 명	18 명	31 명	25 명	18 명	21 명	35 명
	12.00 %	6.00 %	11.60 %	<u>14.00</u> %	3.60 %	12.00 %	7.20 %	12.40 %	10.00 %	7.20 %	8.40 %	14.00 %

월지의 계절별로 살펴본 결과로는 봄생들이 22명 8.80%로 가장 많았고, 여름과 가을생은 각기 32명 12.80%, 35명 14.00%로 감각형이 많았다.

<표 IV-21 > 태어난 계절별 성향 분석

N=250

구분	시간관리		한난조습		오행 성향					학과계열		
	잘함	못함	한습	난조	목	화	토	금	수	인문	이공	예능
겨울 생	39 명	20 명	31 명	12 명	10 명	16 명	20 명	7 명	6 명	22 명	13 명	24 명
	15.60 %	8.00 %	12.40 %	4.80 %	4.00 %	6.40 %	8.00 %	2.80 %	2.40 %	8.80 %	5.20 %	9.60 %
봄 생	39 명	16 명	22 명	33 명	10 명	12 명	20 명	6 명	7 명	27 명	7 명	21 명
	15.60 %	6.40 %	8.80 %	13.20 %	4.00 %	4.80 %	8.00 %	2.40 %	2.80 %	10.80 %	2.80 %	8.40 %
여름 생	36 명	27 명	38 명	25 명	6 명	9 명	23 명	14 명	12 명	27 명	13 명	23 명
	14.40 %	10.80 %	15.20 %	10.00 %	2.40 %	3.60 %	9.20 %	5.60 %	4.80 %	10.80 %	5.20 %	9.20 %
가을 생	45 명	29 명	37 명	26 명	6 명	15 명	26 명	21 명	6 명	27 명	17 명	30 명
	18.00 %	7.60 %	14.80 %	10.40 %	2.40 %	6.00 %	10.40 %	8.40 %	2.40 %	10.80 %	6.80 %	12.00 %

위는 태어난 계절별로 시간관리, 한난조습, 오행성향, 학과 계열 등을 통계분석한 표이다.

<표 IV-22 > 월지의 오 행과 4가지 선호경향과의 관계

N=250명

구별	외향/내향			감각/직관			사고/감정			판단/인식		
	외향형	내향형	균형	감각형	직관형	균형	사고형	감정형	균형	판단형	인식형	균형
해월 자월	13 명	10 명	14 명	15 명	4 명	18 명	9 명	14 명	14 명	7 명	<u>15</u> 명	13 명
	5.20 %	4.00 %	5.60 %	6.00 %	1.60 %	7.20 %	3.60 %	5.60 %	5.60 %	2.80 %	<u>6.00</u> %	5.20 %
인월 묘월	19 명	5 명	19 명	16 명	10 명	17 명	10 명	17 명	16 명	11 명	14 명	18 명
	7.60 %	2.00 %	7.60 %	8.40 %	4.00 %	6.80 %	4.00 %	6.80 %	8.40 %	4.40 %	5.60 %	7.20 %
사월 오월	18 명	12 명	11 명	<u>21</u> 명	5 명	15 명	5 명	<u>21</u> 명	15 명	9 명	7 명	25 명
	7.20 %	4.80 %	4.40 %	<u>8.40</u> %	2.00 %	6.00 %	2.00 %	<u>8.40</u> %	6.00 %	3.60 %	2.80 %	10.00 %
신월 유월	20 명	10 명	19 명	<u>20</u> 명	6 명	23 명	13 명	21 명	15 명	13 명	13 명	23 명
	8.00 %	5.00 %	7.60 %	<u>8.00</u> %	2.40 %	9.20 %	5.20 %	8.40 %	6.00 %	5.20 %	5.20 %	9.20 %
진술 축미 월	30 명	20 명	31 명	40 명	16 명	25 명	21 명	30 명	30 명	16 명	21 명	42 명
	12.0 %	8.00 %	12.40 %	16.00 %	6.40 %	10.00 %	8.40 %	12.00 %	12.00 %	6.40 %	8.40 %	16.80 %

월지를 오 행별로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는 화, 금, 토월이 각각 21명 8.40%, 20명 8.00%, 40명 16.00%로 감각형이 많았고, 화월이 21명 8.40%로 감정형이 많았다. 그리고 수월이 15명 6.00%로 인식형이 많았다.

<표 IV-23> 월지의 오행의 성향 분석

N=250

구분	시간관리		한난조습		오행 성향					학과계열		
	잘함	못함	한습	난조	목	화	토	금	수	인문	이공	예능
해월 자월	25 명	12 명	19 명	18 명	7 명	12 명	11 명	4 명	3 명	14 명	6 명	17 명
	10.00 %	4.80 %	7.60 %	7.20 %	2.80 %	4.80 %	4.40 %	1.60 %	1.20 %	5.60 %	2.40 %	6.80 %
인월 묘월	30 명	13 명	16 명	27 명	9 명	9 명	13 명	5 명	7 명	20 명	5 명	18 명
	12.00 %	5.20 %	6.40 %	10.80 %	3.60 %	3.60 %	5.20 %	2.00 %	2.80 %	8.00 %	2.00 %	7.20 %
사월 오월	21 명	20 명	24 명	17 명	5 명	3 명	12 명	10 명	11 명	18 명	7 명	16 명
	8.40 %	8.00 %	9.60 %	6.80 %	2.00 %	1.20 %	4.80 %	4.00 %	4.40 %	7.20 %	2.80 %	6.40 %
신월 유월	33 명	16 명	24 명	24 명	4 명	8 명	17 명	16 명	4 명	18 명	12 명	19 명
	13.20 %	6.40 %	9.60 %	9.60 %	1.60 %	3.20 %	6.80 %	6.40 %	1.60 %	7.20 %	4.80 %	7.60 %
진술 축미 월	50 명	31 명	45 명	36 명	7 명	20 명	36 명	13 명	6 명	33 명	20 명	28 명
	20.00 %	12.40 %	18.00 %	14.40 %	2.80 %	8.00 %	14.40 %	5.20 %	2.40 %	13.20 %	8.00 %	11.20 %

위의 통계 분석표는 월지를 목화토금수 오행별로 나누어서 시간관리, 한난조습, 오행별 성향, 학과계열을 살펴 본 결과이다.

C. 결과의 해석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격국과 관련지어 분석한 결과는 특이한 결과를 얻기 어려웠으나 오행별로 통계내어 분석한 결과는 몇 가지 성격과 관련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다양한 관점에서의 통계 분석이므로 미세한 차이에도 주목하여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목일간은 성격특성상 예견한 바와 같이 24명 9.60%로 외향형이 많았으며 인묘진 봄생들도 22명 8.80%로 외향형이 많았다. 목의 기질과 관련되어 이러한 분석결과가 나왔다.

화일간관 금일간은 각기 29명 11.60%, 33명 13.25로 감각형인 성격이 많았는데 이와 관련지어 사오미 여름생과 신유술 가을생도 각각 32명 12.8%, 35명 14.00%로 감각형이 많았다. 또한 이와 관련지어서 태어난 계절의 오행이 화, 금, 토인 경우 또한 각각 21명 8.40%, 20명 8.10%, 40명 16.00%로 감각형이 많은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결과도 오행 중에서 화와 금의 기질과 연관되어 이러한 분석결과가 나왔다.

위와 같이 연관되어 나타난 결과가 매우 흥미로웠으며 각기 오행의 특성과 관련되어 뚜렷한 특징을 보였다. 이외에도 다양한 특징들이 나타났는데 성격과 관련되어 나타난 특징들은 위와 같았다.

V. 결 론

A. 요약

한 사람의 생년월일시라는 정보로 사주를 구성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한 사람의 성격적인 면을 비롯하여 선천적인 적성이나 건강문제 그리고 학과 선택과 사회성, 심리적인 특징과 배우자와의 관계 등등 다양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보 중에서도 성격적인 면과 관련지어서 실시한 연구이다.

성격이라는 것은 사주를 구성하는 8개의 글자 모두가 유기적인 영향을 주면서 구성되어지는 것이지만 각 위치별, 태어난 계절별 그리고 일간별로 독특하게 발현되는 성격적인 면이 다를 것이라는 데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기본적인 명리학 이론으로 파악할 수 있는 면 보다는 성격을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는 MBTI이론을 참고로 하였다. MBTI에서는 사람에게 있는 교육이나 환경과 관련없이 별개로 고유하게 선천적으로 타고 나는 심리경향을 4가지로 나누어서 4가지 선호경향으로 부르고 있다. 이러한 4가지 선호경향을 간단한 질문을 통해 조사하고 분석 및 통계를 내어보았다.

그 결과 한 사람의 성격적인 면은 사주 8개의 글자 모두를 살펴보고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결론을 내야겠지만 설문지를 통한 다양한 내용의 분석결과 몇 가지의 연관성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목화토금수의 오행 중에서 가장 자신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은 목화 기질이다. 그런데 MBTI 4가지 선호경향과 관련지어 통계분석한 결과 목 일간과 인묘진 봄생들이 가장 외향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었다. 외향적이라는 것은 무엇이 그 사람을 활력있게 만드는가 하는 에너지의 방향에서 관찰한 것으로 혼자만의 사색을 즐기

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활력을 얻는 성격을 의미한다. 목의 솟구쳐 오르고 성장하려 하며 진보적인 기질은 MBTI의 선호경향 중에서 외향적이라는 면으로 잘 드러나고 있다.

다음으로 성급하고 자신을 감추지 못하지만 명분과 체면을 중시하는 화의 성정과 금의 결단성과 실리적, 이기적인 성정은 MBTI의 4가지 선호경향 중에서 감각적인 성향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각적이라는 것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법적인 면에 대한 인식인데 실용적이고 단순명료하면서 성취 가능하고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 이러한 감각적인 인식은 화와 금의 실제적이고 드러나는 기질과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사오미 여름생과 신유술 가을 생들은 감각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응답한 사람들이 많았으며 태어난 계절의 오행을 분리하여 월지가 화, 금, 토인 사람들도 감각적 인식을 가진 응답자들이 많았다. 또한 일간이 화와 금인 경우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 외에도 토요일간과 수일간 그리고 월지가 화인 경우에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는 면에 있어서 감정적인 면이 많다고 응답하였으며 월지가 수인 경우는 삶을 살아가는 생활양식이 목적과 방향은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인식형이 많았다. 고정적인 삶의 양식 보다는 융통성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많은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한 사람의 성격적인 특성을 밝히는 데에는 음양 오행에 기초한 명리학적인 이론을 토대로 확산적인 사고방식을 동원하여 다양한 현대 심리학과 성격이론들을 접목시킨 연구는 한 사람을 더욱 심도있게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보아진다.

B. 제언

성격을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한 작업이다. 그러므로 사주명리학적인 성격분석 외에도 현대적인 감각으로의 관찰과 여러 성격검사 도구들을 참고하여 연관지어진 연구가 더 필요한 시기이다. 다양한 지식들이 서로의 고유한 영역을 확보하되 유기적인 관련성을 맺고 협조적인 연구가 활발해질 때에 학문이 발전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의의는 명리학적인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성격검사 도구인 MBTI성격유형검사의 기본적인 이론인 4가지 선호경향을 토대로 하여 그 연관성을 연구한 것에 있다. 그런 가운데 목의 기질은 MBTI의 외향적인 태도와 관련이 깊었으며 화와 금의 기질은 MBTI의 감각적인 인식과 관련이 깊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 나라의 문화의 발전이든 학문의 발전이든 다양한 교류와 주체성있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개방적인 태도는 결과적으로 더 효율적인 발전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명리학도 앞으로는 활발한 타 학문과의 교류를 이루어 발전을 이루어 나갈 때라고 보아지며 이러한 성격면에서의 연구도 보다 다양한 연구결과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 곽노의 (1988), 『유아교육개론』, 교문사
- 김기승 (2005), 『사주명리를 통한 초등학생 영재관별 방법의 연구』, 국제문화 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남선 (2002), 『평생교육방법론』, 도서출판 두남
- 김동완 (2000), 『사주성명학에 나타난 성격유형과 진로적성과의 상호관계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배성 (2002), 『Top 만세력』, 창해
- _____ (2003), 『명리학 정론』, 창해
- _____ (2004), 『명리대경』, 명운당
- _____ (2004), 『사주심리치료학』, 창해
- _____ (2006), 『사주심리와 인간경영』, 창해
- _____ (2006), 『격국용신정의』, 청학출판사
- 김영수 (1987), 『교육공학입문』, 형설출판사
- 김의인 (2004), 『사주심리증후군과 교육방법의 상관관계 연구』, 경기대학교 국제문화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의인 (2005), 『명리학과 교육방법론』, 명운당
- 김홍경 (1993), 『음양오행설의 연구』, 신지서원
- 노안영외 (2006), 『성격심리학』, 학지사
- 만민영, (2003), 『삼명통회』, 무릉출판사
- 배석영 외 (2007), 『평생교육개론』, 양서원
- 이용준 (2004), 『사주학의 역사와 격국용신의 변천과정 연구』, 경기대학교 국제문화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지호 (2003), 『조화원약 평주』, 삼한출판사
최영선 (2004), 『사주에서 나타나는 선천적성과 종사 직업과의 상관관계 연구』, 경기대학교국제문화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총원격연수원 (2006), 『심리검사의 이해와 학생상담』
한동석 (1996),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 행림출판사

< 외국 서적 >

Dale H. Schunk (2006), 『학습이론』, 아카데미프레스
S.HIRSH &KUMMEROW/심혜숙, 임승환 옮김 (1997), 『성격유형과 삶의 양식』, 한국심리검사연구소
Richard Feynman, *The Character of Physical Law*, (The M.I.T. Press), 1970
폴D티저& 바바라 배런 티저/강주헌 옮김 (2001), 『사람의 성격을 읽는 법』, 더난

< 인터넷 사이트 >

www.empas.com
<http://www.mbti.co.kr/>

ABSTRACT

The Study on the Interrelation Between Saju Myongri and the Character Theory of MBTI

Suk-Ran Kim

Major in Myongri Education

Korea International Culture University of Graduate. 2006

Advisor : Ki-Seung Kim

This thesis is the study on a link between the characteristics in Saju Myongri and the character theory of MBTI. The Saju composed of the date and time of one's birth provides a variety of information about one. One's characteristic aspect has many relations with a character of Ilgan based on Eumyang-ohang, wolji related to the season of one's birth, and Kyoggug. I took notice of these points and has studied the characteristics of Saju having related to four kinds of preference aptitudes from the character theories of MBTI. The 250 questionnaires from effective age group are analyzed and gathered statistics of.

As expectation, the persons of Wood-Ilgans are outgoing personality in 24 persons(9.60%) and the persons born in spring are outgoing personality in 22 persons(8.80%). This is the result of the analysis about the nature of

wood. Fire-Ilgans are sensible personality in 29 persons(11.60%) and Metal-Ilgans are sensible personality in 30 persons(13.25%). The persons born in summer are sensible personality in 32 persons(12.8%) and the persons in fall are sensible personality in 35 persons(14.00%). In relation to born season, Fire-Ilgans are 21 persons(8.40%), Metal-Ilgans are 20 persons(8.10%), Earth-Ilgan are 40 persons(16.00%). This is the result of the analysis about the nature of fire and metal.

The wood and fire among the Five Elements expose one's character most. The result of the analysis relating to four kinds of preference aptitude of MBTI shows that Wood-Ilgan and the persons born in spring expose their outgoing character. The promoting, growing, and progressive nature of wood corresponds to extroversion of preference aptitude of MBTI.

The nature of fire not to conceal one's feeling and to value one's moral duty and face, and the firm, utilitarian, and selfish nature of metal have the deep relation to sensible personality of preference aptitude of MBTI. The meaning of sensible is perception to the means getting information and it has to be utilitarian and simple and accessible, and 'now and here' is important. This sensible perception has a deep relation to nature of utilitarian and exposing metal.

The persons born in summer and fall answered most to have sensible perception and the persons born in fire, metal, and earth month answered most to have sensible perception. Also, Fire-Ilgan and Metal-Ilgan did so.

In addition to these, Earth-Ilgans and Water-Ilgans, the persons born in summer answered most to have feeling reply when they decide their mind. The persons born in winter are mainly cognitive types that are

flexible and changeable on the way of living according to the situations.

The characteristic nature on Myougri and the character theory in MBTI have a relation between both of them. This is the meaning of this study. Even though two sciences show the same nature or the different nature, if they have their subjecthood and interchange, they will help each other. As a result of this study, one's character can be analyzed in various viewpoints with only the date and time of one's birth.

부 록

<부록1>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에서 철학(명리학)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2007석사학위논문으로 ‘사주와 MBTI 이론과의 상관관계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주를 성격론적인 면에서 집중 탐구하고 MBTI 4가지 선호경향과 비교하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에 응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다음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은 익명성이 보장되며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7년 4월 김석란 올림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남() 녀()

2. 생년월일시를 정확하게 표시해 주시고 양력과 음력, 태어난 시간에서 오전과 오후는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_____년 _____월 _____일 (양, 음) _____시 _____분 (오전, 오후)

<3번에서 13번 까지는 둘 중에서 귀하와 더 가깝다고 생각되시는 쪽을 선택해주세요>

3. 나는 감정적이고 활동력이 강하다() 나는 신중하고 조용한 편이다()
4. 나는 말로 표현하는 것을 더 잘한다() 나는 글로 표현하는 것을 더 잘한다()
5. 나는 현재와 지금이 중요하다() 나는 미래가 더 중요하다()
6. 나는 사실적인 표현이 좋다() 나는 비유적인 표현이 좋다()
7. 나는 규칙이 더 중요하다() 나는 규칙보다 그 의미가 더 중요하다()
8. 나는 맞고 틀린 것이 중요하다() 나는 좋고 나쁜 것이 중요하다()
9. 나는 기준이 있는 게 편하다() 나는 융통성있는 상황이 더 좋다()
10. 나는 신속한 결론이 좋다() 나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
11. 나는 시간관리를 잘 한다() 나는 시간관리를 잘 못한다()
12. 나는 타이밍에 강하다() 나는 타이밍에 약하다()
13. 나는 정적이고 이론적이며 주로 실내 공간에서의 사색을 좋아한다()

나는 동적이고 실천적이며 개방화 된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다()

<14번에서 14번까지는 다음 중에서 귀하와 더 가깝다고 생각되시는 한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14. 나는 리더쉽이 강하고 진보적인 기질이 있으며 자기 주장이 강하다()

나는 예의와 명분을 중요시하며 활발하고 감정적인 면이 있다()

나는 신용을 중시하며 신중하고 남들과 의견 타협을 잘 한다()

나는 의리있게 행동하며 결단력이 있고 냉정한 면이 있다()

나는 적응력이 강하고 기획력이 좋으며 사색적인 면이 있다()

15. 나의 적성에 맞는 계열은 인문계열(), 이공계열(), 예능계열()이다.

-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2>

설문내용 분석통계 자료

	생년월일	성 별	일 간	격 국	계 절	외 항 - 내 항	감 각 - 직 관	사 고 - 감 각	판 단 - 인 식	시 간 관 리	타 이 밍	한 습 난 조	오 행 성 향	학 과 계 열	양 음
1	57.10.7.유시	여	갑목	정인격	해월	1	3	1	3	1	1	2	3	3	2
2	57.7.27.신시	여	병화	편재격	신월	3	1	3	3	2	1	1	2	2	1
3	79.1.29.해시	남	계수	정재격	인월	1	3	3	1	1	1	2	1	2	2
4	62.11.4.묘시	여	임수	비견격	해월	3	1	2	3	1	2	1	2	1	3
5	57.12.2.묘시	여	무토	정재격	축월	3	3	1	1	1	1	2	3	3	2
6	60.8.15.사시	여	병화	편재격	유월	3	1	1	1	1	2	1	2	2	3
7	62.2.4.묘시	남	병화	정인격	묘월	2	3	1	1	1	2	1	3	1	2
8	62.6.21.진시	여	신금	편관격	미월	1	1	3	1	1	1	1	3	2	3
9	74.9.17.진시	여	을목	정재격	술월	1	1	3	3	1	2	2	4	1	1
10	86.8.23.사시	여	기토	상관격	신월	2	2	3	1	2	1	1	5	3	1
11	59.8.7.유시	여	갑목	정관격	유월	3	3	1	3	2	1	1	3	2	2
12	69.1.23.묘시	남	을목	비견격	묘월	3	3	1	2	2	2	2	3	1	2
13	59.12.4.인시	남	기토	편재격	자월	1	3	1	3	1	1	2	3	2	3
14	83.9.15.자시	여	병화	정재격	유월	2	1	2	1	2	2	1	3	3	2
15	86.9.17.오시	여	갑목	편관격	유월	2	3	1	1	1	1	1	3	1	3
16	60.1.14.축시	남	무토	편관격	인월	3	1	1	1	1	1	1	1	3	1
17	72.9.10.묘시	남	경금	비견격	술월	1	1	3	1	1	1	2	3	2	1
18	76.6.6.오시	여	을목	상관격	오월	1	1	3	2	1	1	2	4	3	3
19	81.11.12.사시	여	갑목	편인격	해월	1	3	2	3	2	1	2	1	3	2
20	78.9.21.축시	남	병화	정재격	유월	1	1	2	3	2	1	2	4	3	2
21	82.11.8.진시	남	을목	정인격	해월	1	1	2	3	2	1	2	4	3	1
22	75.5.2.진시	남	기토	편인격	사월	3	2	2	2	2	2	1	4	2	3
23	81.9.6.해월	남	정화	편재격	신월	1	3	3	2	1	2	2	4	2	3
24	64.9.10.술시	여	정화	정재격	술월	1	1	2	3	1	2	2	3	2	1
25	63.5.2.미시	여	병화	식신격	오월	3	3	2	3	2	2	2	3	1	2
26	80.3.11.신시	남	계수	식신격	묘월	1	3	3	2	2	1	2	5	1	3
27	85.5.17.인시	여	병화	편재격	사월	3	1	2	3	2	2	2	1	3	1
28	72.1.5.인시	남	경금	편재격	인월	3	2	3	3	2	1	2	1	1	1
29	77.11.28.사시	남	기토	정재격	해월	2	3	2	2	2	2	1	5	1	2
30	64.9.16.인시	여	계수	정관격	술월	2	2	1	3	1	2	2	3	3	1
31	65.7.24.사시	여	병화	편재격	신월	2	3	2	2	2	2	1	2	1	1
32	59.11.1.묘시	남	병화	정인격	해월	3	2	3	3	2	2	2	3	1	3
33	71.2.1.묘시	남	신금	정재격	인월	3	1	2	2	1	2	1	3	3	3
34	79.10.6.축시	여	병화	정관격	유월	3	1	3	3	2	1	1	4	1	2
35	60.3.13.축시	남	경금	정재격	묘월	2	3	2	2	2	2	1	5	2	2
36	81.12.28.유시	여	경금	상관격	자월	1	3	2	3	1	1	2	2	3	2
37	61.10.17.사시	여	계수	편재격	술월	3	1	1	1	2	2	1	2	3	2
38	80.12.11.인시	남	갑목	편관격	축월	1	2	1	3	2	1	2	1	2	1

39	77.2.5.사시	여	경금	정재격	묘월	1	1	2	3	1	1	2	1	3	3
40	68.7.17.자시	남	임수	편인격	신월	1	3	2	3	2	2	2	5	2	1
41	59.5.1.사시	남	기토	비견격	사월	1	1	3	1	2	1	2	2	2	2
42	70.8.2.진시	남	을목	정관격	신월	3	3	2	2	1	2	2	3	3	1
43	73.9.25.신시	남	갑목	정관격	유월	2	2	2	2	1	1	1	4	1	2
44	60.1.12.오시	여	기토	비견격	축월	2	2	3	3	1	2	1	3	1	2
45	50.6.23.묘시	남	계수	식신격	미월	2	3	3	3	1	1	1	2	1	2
46	61.6.1.미시	남	정화	편인격	미월	3	1	1	3	2	2	1	4	3	2
47	63.5.8.진시	여	임수	정재격	오월	3	2	2	3	1	2	1	5	1	1
48	64.7.19.사시	남	정화	정재격	신월	3	3	1	1	2	2	2	1	2	1
49	68.7.27.신시	여	임수	편인격	신월	1	3	1	3	1	2	2	3	1	1
50	72.12.10.유시	여	경금	상관격	축월	2	2	3	2	2	2	1	5	3	2
51	67.10.13.신시	여	임수	비견격	해월	1	3	3	1	1	1	2	1	2	3
52	64.2.3.진월	여	갑목	상관격	묘월	3	3	3	1	2	2	1	3	1	1
53	51.2.21.인시	여	정화	편인격	묘월	3	2	3	3	2	2	1	2	3	2
54	37.10.27.사시	여	경금	식신격	해월	2	3	1	2	2	2	2	4	1	3
55	84.6.2.진시	여	정화	겁재	사월	2	1	2	3	2	2	2	4	1	3
56	67.1.26.인시	여	기토	정인격	인월	1	1	3	3	2	1	2	4	1	1
57	70.3.5.묘시	여	경금	비견격	진월	3	1	3	2	1	1	1	3	3	1
58	68.8.29.신시	여	계수	정관격	술월	2	2	2	3	1	2	1	2	1	1
59	71.12.15.신시	남	경금	정관격	축월	1	3	2	3	2	1	1	3	3	1
60	61.7.24.묘시	여	기토	상관격	신월	3	1	2	3	1	2	1	3	3	2
61	65.6.16.인시	여	기토	편관격	미월	3	2	3	3	1	2	1	3	3	3
62	63.7.9.축시	여	임수	편인격	신월	1	3	3	3	1	2	2	4	1	3
63	42.7.16.유시	여	임수	비견격	신월	1	3	2	3	2	2	1	5	3	3
64	54.8.5.사시	여	임수	상관격	미월	3	1	1	3	1	2	2	3	3	1
65	64.12.23.술시	남	기토	비견격	축월	2	3	3	1	1	1	1	4	2	3
66	72.9.10.진시	여	경금	비견격	술월	2	3	3	1	1	2	1	2	1	1
67	60.6.19.신시	남	무토	정인격	오월	2	3	2	3	1	1	1	5	1	1
68	61.4.14.신시	여	신금	비견격	사월	1	1	1	1	1	1	1	4	3	2
69	59.2.7.묘시	남	병화	겁재격	묘월	1	2	2	2	1	1	2	1	1	2
70	59.9.28.오시	여	계수	정관격	술월	1	3	3	3	1	1	2	3	3	3
71	60.12.27.오시	남	병화	편인격	인월	1	3	2	3	1	2	1	2	3	3
72	53.11.16.묘시	여	병화	편인격	자월	3	1	3	1	2	2	2	4	3	2
73	37.7.15.묘시	남	기토	식신격	신월	1	1	3	1	1	1	2	3	1	2
74	65.9.29.오시	여	경금	편관격	술월	3	3	3	3	2	2	2	5	3	1
75	59.3.1.자시	여	임수	상관격	묘월	3	1	3	1	1	1	2	2	3	2
76	58.5.20.유시	여	갑목	편재격	미월	1	3	1	1	1	1	1	4	3	2
77	65.9.4.자시	남	을목	편관격	유월	1	2	2	3	1	1	1	1	3	2
78	68.7.12.인시	여	정화	식신격	미월	1	2	2	3	1	2	1	3	3	3
79	63.2.16.신시	남	계수	식신격	묘월	3	3	2	3	1	2	2	2	1	2
80	82.11.8.술시	남	신금	식신격	자월	3	1	1	3	2	1	1	3	1	2
81	42.10.9.묘시	남	갑목	편인격	해월	1	1	3	3	1	2	2	3	2	3

82	55.12.5.미시	여	계수	편관격	축월	3	3	2	3	1	1	1	3	3	2
83	63.7.17.진시	여	경금	비견격	신월	3	1	3	2	1	2	2	4	3	1
84	32.5.26.술시	남	신금	편관격	오월	2	3	3	3	1	1	1	4	1	1
85	62.8.16.축시	남	을목	편관격	유월	3	1	2	2	1	1	2	3	3	2
86	72.4.29.오시	여	임수	편재격	오월	2	3	3	3	2	1	1	5	3	1
87	39.12.16.묘시	남	정화	편관격	자월	2	3	3	3	1	1	1	2	3	2
88	58.5.27.신시	여	신금	편인격	미월	1	1	2	3	1	1	2	3	3	3
89	56.10.28.인시	여	신금	상관격	해월	3	1	2	3	1	1	2	4	3	1
90	37.3.7.묘시	남	갑목	비견격	진월	1	1	3	1	1	1	2	1	2	3
91	43.11.26.술시	남	을목	겁재격	자월	2	1	3	1	1	1	1	1	1	2
92	55.8.15.미시	여	갑목	정관격	유월	1	3	3	3	1	1	2	2	3	2
93	53.2.7.해시	여	신금	편재격	묘월	1	1	1	3	2	2	1	3	1	2
94	56.10.2.술시	여	을목	정재격	술월	1	1	1	1	1	2	2	3	3	1
95	74.3.6.축시	남	병화	편인격	인월	1	3	3	3	2	1	2	2	1	1
96	63.1.3.인시	남	경금	편인격	축월	3	1	3	3	1	2	1	4	1	1
97	49.10.14.인시	여	임수	편관격	술월	1	3	2	2	2	2	1	2	1	1
98	66.3.2.사시	여	경금	편관격	인월	1	1	1	1	1	1	2	4	3	1
99	65.12.6.신시	여	병화	정관격	자월	1	3	3	3	2	1	2	2	1	1
100	59.5.24.오시	여	임수	편재격	오월	2	1	3	1	1	2	1	1	1	3
101	52.5.24.해시	여	계수	정재격	오월	1	1	1	3	1	1	2	4	3	1
102	48.6.5.해시	남	정화	식신격	미월	2	3	3	3	1	2	1	2	1	2
103	54.5.29.묘시	여	병화	겁재격	오월	1	1	2	2	2	2	2	3	1	3
104	42.8.28.자시	남	을목	편관격	유월	1	1	1	1	1	1	1	3	1	2
105	48.2.20.해시	여	갑목	겁재격	묘월	3	2	3	2	1	2	2	4	1	3
106	29.8.3.인시	남	계수	겁재격	신월	1	2	3	3	1	1	1	4	3	1
107	64.3.29.술시	여	기토	정인격	사월	1	1	2	3	1	2	2	3	1	1
108	55.10.17.인시	여	신금	편인격	술월	1	1	2	2	1	1	2	4	3	1
109	45.7.16.인시	남	병화	정인격	미월	1	1	3	3	1	1	1	3	2	3
110	62.9.25.진시	남	갑목	편관격	술월	1	3	2	3	1	1	1	1	3	1
111	41.8.10.해시	남	신금	비견격	유월	1	1	3	3	1	1	1	4	2	2
112	58.11.2.진시	남	계수	상관격	자월	1	2	3	3	2	2	1	1	3	1
113	83.4.2.진시	여	경금	정재격	묘월	3	3	2	3	2	1	1	5	3	1
114	59.10.11.사시	여	정화	편인격	해월	2	3	1	3	1	1	1	3	1	2
115	58.7.6.진시	여	기토	상관격	신월	2	3	1	3	1	2	1	3	2	1
116	69.6.7.미시	남	계수	편재격	오월	2	1	2	2	1	1	1	5	2	2
117	60.10.7.진시	남	무토	식신격	유월	1	2	1	3	1	2	2	2	1	1
118	58.11.2.진시	남	계수	상관격	자월	1	3	2	3	2	1	1	2	2	1
119	65.12.25.해시	여	을목	편재격	축월	1	2	3	2	2	2	1	4	3	2
120	66.1.28.인월	여	무토	편관격	인월	1	1	3	3	2	2	2	1	1	1
121	60.7.9.인시	여	경금	비견격	신월	1	1	1	1	1	1	2	2	1	1
122	68.4.3.해시	여	경금	편인격	진월	3	1	1	1	1	2	2	2	1	1
123	67.5.30.해시	여	임수	편재격	오월	3	3	2	3	2	1	2	5	2	3
124	64.5.6.자시	여	을목	상관격	사월	1	3	2	2	1	1	2	5	3	3

125	46.1.17.술시	남	신금	편인격	축월	3	1	3	2	1	1	2	3	2	2
126	72.2.17.진시	남	신금	편재격	묘월	2	1	3	3	1	1	1	5	1	2
127	42.10.2.오시	남	정화	정관격	해월	2	1	3	1	1	1	1	2	1	2
128	62.5.22.신시	여	경금	편관격	사월	1	3	3	3	2	1	2	5	3	1
129	59.6.13.사시	여	신금	비건격	미월	2	3	1	1	1	1	1	3	1	2
130	84.8.6.미시	남	임수	정인격	미월	3	3	3	2	1	1	2	3	2	2
131	84.12.1.술시	남	기토	편관격	해월	1	3	2	3	1	1	1	1	3	1
132	84.6.21.오시	남	병화	겁재격	오월	1	3	2	3	2	1	2	1	3	1
133	55.3.6.묘시	여	기토	편관격	묘월	1	1	1	3	1	2	2	3	1	2
134	84.11.10.유시	남	무토	정관격	해월	1	3	2	1	2	1	1	1	3	3
135	81.4.23.미시	여	신금	상관격	진월	1	1	3	3	2	2	2	4	3	2
136	79.12.29.진시	여	경금	상관격	자월	2	2	2	2	1	1	1	2	3	3
137	86.2.28.술시	여	계수	정재격	인월	3	2	3	1	1	1	2	1	1	1
138	85.7.24.인시	여	갑목	겁재격	미월	1	3	2	3	2	2	2	2	1	2
139	84.4.22.술시	남	병화	상관격	사월	1	1	2	3	2	2	1	5	2	1
140	84.8.8.미시	여	갑목	정관격	신월	3	1	3	2	1	1	1	3	1	1
141	55.5.1.축시	남	임수	정재격	오월	1	1	3	1	1	2	2	5	3	2
142	34.1.6.술시	남	정화	정재격	축월	3	1	1	2	1	1	2	3	2	2
143	72.1.26.술시	여	병화	식신격	축월	3	3	2	3	2	2	1	2	1	1
144	52.11.11.진시	여	신금	상관격	해월	3	1	2	3	1	2	2	3	3	1
145	55.5.9.축시	여	경금	정관격	사월	2	1	2	1	1	1	1	3	1	2
146	57.4.19.자시	남	경금	정관격	사월	2	3	3	3	1	2	1	4	3	3
147	53.1.13.술시	여	계수	상관격	자월	3	1	3	2	1	1	2	1	3	3
148	56.1.14.오시	여	임수	편재격	인월	3	2	2	2	1	2	2	1	3	1
149	60.9.15.미시	여	을목	상관격	술월	3	3	2	2	1	1	1	3	3	2
150	52.9.10.사시	여	정화	정재격	술월	3	3	3	1	1	2	1	2	3	1
151	66.10.7.오시	남	신금	상관격	해월	3	1	3	1	1	2	1	3	2	3
152	56.8.11.오시	여	을목	편관격	유월	1	1	1	1	1	1	1	4	3	2
153	69..4.5.미시	여	경금	편인격	술월	3	1	3	2	1	1	1	3	2	3
154	70.8.17.묘시	남	경금	겁재격	유월	1	3	3	3	1	2	1	4	2	2
155	60.4.26.인시	남	갑목	편관격	진월	2	3	2	3	1	1	2	3	1	1
156	44.4.16.해시	남	신금	편관격	오월	2	1	3	3	1	1	1	3	2	3
157	67.5.7.묘시	여	기토	정인격	오월	3	3	3	2	1	1	2	3	3	2
158	53.2.8.술시	남	임수	상관격	묘월	1	2	3	1	1	2	2	4	3	1
159	68.1.9.술시	여	정화	정인격	인월	1	3	2	3	1	1	1	2	1	1
160	66.8.27.오시	여	계수	정재격	술월	1	1	3	2	1	1	1	2	3	3
161	61.1.11.인시	여	기토	정인격	인월	2	1	2	2	1	2	2	3	3	3
162	52.1.5.진시	남	병화	정재격	축월	1	1	1	3	2	2	1	2	1	2
163	76.1.14.묘시	여	을목	편재격	축월	3	2	2	3	1	1	2	5	1	2
164	56.3.14.오시	여	신금	상관격	진월	3	1	1	3	2	1	2	2	1	1
165	71.4.20.묘시	여	기토	식신격	사월	1	1	1	1	2	2	2	4	1	2
166	51.1.10.유시	여	병화	겁재격	인월	3	1	3	1	1	1	2	3	1	3
167	49.4.8.축시	여	을목	정재격	진월	2	2	1	3	1	1	1	3	1	2
168	58.9.3.사시	여	을목	정재격	술월	3	1	3	3	1	1	2	2	1	1
169	60.9.23.신시	여	계수	겁재격	해월	2	1	3	3	1	2	1	3	1	3
170	68.1.6.오시	여	갑목	편관격	축월	1	2	2	3	1	1	2	3	3	2

171	68.1.25.인시	여	계수	상관격	인월	3	3	2	1	1	2	1	3	2	1
172	70.1.15.축시	여	을목	편재격	축월	2	3	1	2	1	1	1	3	1	2
173	76.9.21.오시	여	병화	정재격	유월	3	1	1	1	1	1	2	4	3	3
174	46.7.19.진시	여	갑목	편재격	미월	2	1	1	3	1	1	1	2	3	1
175	51.8.14.인시	여	정화	편재격	유월	3	3	2	3	2	2	2	2	1	2
176	72.11.29.유시	여	기토	정재격	자월	3	1	2	2	1	2	1	2	1	2
177	55.8.5.해시	여	갑목	정관격	유월	1	1	3	2	1	2	2	3	2	2
178	60.9.6.오시	남	병화	비건격	술월	2	2	1	3	1	1	2	4	2	1
179	60.9.27.진시	여	정화	정인격	해월	3	3	2	2	1	1	2	2	3	3
180	50.8.27.사시	여	병화	정재격	유월	2	2	2	2	2	2	1	3	1	3
181	63.1.13.미시	여	경금	편재격	인월	1	2	2	3	1	2	2	5	2	3
182	68.4.7.유시	남	정화	상관격	진월	3	1	2	2	2	2	1	3	1	3
183	79.7.7.축시	여	무토	편재격	신월	2	3	2	1	2	2	1	3	1	3
184	79.7.25.진시	여	계수	편인격	미월	1	1	2	3	2	2	2	4	1	2
185	54.4.30.진시	여	병화	식신격	진월	2	2	2	3	1	2	1	3	1	1
186	71.12.24.오시	여	기토	정관격	인월	1	3	1	2	1	1	1	2	3	1
187	78.1.8.신시	여	경금	상관격	축월	2	1	1	1	1	1	1	1	2	3
188	69.5.15.오시	여	경금	정인격	사월	2	1	3	3	2	2	1	3	3	3
189	71.1.28.유시	여	기토	정관격	인월	1	1	2	3	1	1	2	3	3	2
190	80.1.13.술시	여	을목	편재격	축월	2	2	2	3	1	1	2	2	1	2
191	70.5.9.묘시	여	계수	편재격	오월	3	2	2	3	1	2	1	3	1	3
192	75.9.27.인시	남	병화	편재격	유월	1	3	2	3	1	1	1	1	2	2
193	80.1.12.인시	남	경금	편재격	인월	1	3	2	2	1	1	2	2	1	1
194	65.6.15.인시	남	무토	정관격	미월	3	1	1	2	2	1	2	3	1	1
195	70.3.16.신시	여	신금	겁재격	진월	1	3	3	3	1	1	1	3	1	1
196	36.1.18.술시	여	임수	편재격	인월	3	3	3	2	1	1	1	5	3	1
197	26.12.22.신시	남	을목	편인격	자월	3	3	1	1	1	1	1	2	1	1
198	71.10.5.해시	여	신금	상관격	해월	3	3	1	1	1	1	2	3	1	3
199	62.6.29.진시	남	기토	겁재격	미월	1	1	2	2	2	1	1	3	1	1
200	74.8.14.인시	여	정화	정재격	신월	2	3	3	3	1	1	1	4	1	1
201	70.2.5.사시	여	병화	식신격	인월	1	2	2	2	1	1	2	3	3	1
202	71.1.1.술시	여	병화	정관격	자월	2	1	3	3	1	2	1	5	2	1
203	72.6.18.축시	여	경금	편관격	오월	3	1	3	3	1	1	1	3	3	3
204	54.1.19.축시	여	을목	편인격	축월	1	1	2	3	2	1	2	5	2	2
205	48.9.2.신시	남	임수	정인격	유월	2	1	2	2	1	2	2	4	3	1
206	53.4.13.진시	여	병화	겁재격	사월	1	1	1	1	1	2	1	5	3	1
207	59.4.4.해시	남	계수	편관격	사월	2	1	2	3	2	2	1	5	1	3
208	65.9.15.미시	여	병화	비건격	술월	3	1	2	2	1	1	2	1	1	1
209	59.4.8.신시	여	정화	식신격	사월	1	2	2	3	2	2	1	4	1	3
210	71.5.14.자시	여	임수	정인격	사월	1	3	3	2	1	2	1	3	1	1
211	68.7.29.사시	남	갑목	편관격	신월	3	3	2	2	2	2	1	3	2	1
212	76.5.1.오시	남	신금	정관격	사월	3	3	3	1	2	1	1	3	1	1
213	79.8.18.축시	여	정화	편재격	신월	1	1	3	1	1	1	2	3	1	2
214	82.5.25.유시	여	무토	상관격	사월	1	2	2	3	1	1	2	1	3	1
215	69.8.29.자시	남	기토	겁재격	술월	3	1	2	3	1	2	1	3	1	2
216	64.5.6.오시	남	을목	식신격	오월	3	3	1	1	1	1	1	4	3	3
217	67.7.16..유시	여	정화	정재격	신월	3	1	2	1	1	2	1	3	1	2
218	68.3.7.해시	여	갑목	겁재격	묘월	3	1	1	2	1	1	2	3	3	1

219	61.4.18.술시	여	을목	상관격	사월	3	1	3	3	2	2	1	2	1	2
220	60.10.16.술시	남	정화	겁재격	술월	1	1	1	3	1	1	1	5	1	1
221	68.7.7.묘시	여	임수	정관격	미월	3	1	1	1	1	2	2	2	2	3
222	67.9.20.묘시	여	경금	비견격	술월	3	1	3	2	1	1	1	4	1	3
223	97.8.23.신시	남	기토	식신격	유월	3	1	2	3	1	1	2	1	3	2
224	75.9.14.진시	여	계수	편인격	유월	3	3	2	2	1	1	2	4	1	2
225	81.7.17.진시	여	병화	정인격	미월	1	3	2	2	1	1	1	4	1	3
226	59.9.5.해시	여	신금	식신격	유월	3	3	1	3	1	1	2	4	3	2
227	65.12.20.신시	남	경금	정인격	축월	2	2	2	3	1	1	2	3	2	2
228	67.10.18.오시	남	정화	정관격	해월	2	1	2	2	1	2	1	2	3	2
229	66.8.25.유시	여	신금	정인격	술월	3	1	2	2	1	1	2	4	2	2
230	71.2.26.묘시	여	병화	정인격	묘월	3	3	2	2	2	2	1	4	3	2
231	70.9.14.유시	여	병화	비견격	술월	2	1	2	3	1	1	1	3	3	1
232	70.12.13.오시	남	갑목	편관격	축월	1	1	3	3	1	1	2	1	3	3
233	59.9.5.해시	여	신금	식신격	유월	3	3	1	3	1	1	2	4	3	2
234	78.4.9.인시	여	신금	정인격	진월	3	3	2	3	1	1	2	2	3	1
235	73.2.4.해시	여	계수	식신격	묘월	2	1	1	3	1	2	1	3	1	2
236	74.6.12.진시	남	갑목	상관격	오월	1	3	2	3	2	2	1	2	1	1
237	80.1.7.축시	여	기토	비견격	축월	3	3	3	1	2	2	1	2	1	2
238	66.6.1.인시	남	무토	정관격	미월	1	3	2	2	2	2	1	2	2	1
239	69.7.6.신시	남	을목	정인격	신월	3	3	2	2	2	2	2	2	3	3
240	78.8.19.오시	남	계수	정인격	신월	1	3	2	3	2	2	2	5	3	3
241	73.4.15.미시	남	신금	식신격	진월	2	1	2	2	1	1	1	3	2	2
242	70.6.12.미시	남	병화	정인격	미월	3	1	3	3	1	2	2	3	2	3
243	75.1.6.축시	남	임수	겁재격	자월	3	3	1	3	1	2	2	2	3	3
244	80.3.21.해시	여	무토	식신격	사월	2	3	2	3	2	2	1	3	1	1
245	78.2.22.유시	남	신금	편재격	묘월	3	1	1	1	1	2	2	5	1	2
246	76.6.27.미시	여	병화	정인격	미월	3	2	3	1	2	2	1	5	1	2
247	81.2.10.묘월	여	기토	편인격	인월	1	2	2	3	1	2	2	1	3	2
248	71.10.2.사시	남	무토	편재격	해월	3	2	3	1	2	2	1	5	1	1
249	75.5.21.유시	남	정화	비견격	오월	1	1	2	3	2	2	2	1	2	2
250	93.2.20.신시	여	임수	식신격	인월	3	3	3	3	2	1	2	2	2	1

외향/내향 : 1번은 외향, 2번은 내향, 3번은 외향과 내향 모두 갖춘 경우

감각/직관 : 1번은 감각, 2번은 직관, 3번은 감각과 직관 모두 갖춘 경우

사고/감정 : 1번은 사고, 2번은 감정, 3번은 사고와 인식 모두 갖춘 경우

판단/인식 : 1번은 판단, 2번은 인식, 3번은 판단과 인식 모두 갖춘 경우

시간 관리 : 1번은 잘함, 2번은 못함

타이밍 : 1번은 강함, 2번은 약함

한습난조 : 1번은 한습, 2번은 난조

오행성향 : 1번은 목, 2번은 화, 3번은 토, 4번은 금, 5번은 수

학과계열 : 1번은 인문계열, 2번은 이공계열, 3번은 예능계열

음양 : 1번은 양이 많음, 2번은 음이 많음, 3번은 조화를 이룸